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白耳義의平價切下와 그影響

一

질랑氏를 首班으로한 白耳義新內閣은 二十九日 二割五分의 平價切下를 公表하고 同日夜 政府는 二割五分乃至三割의 平價切下案及 金本位停止를包含한 所謂 緊急救濟의 貨幣變更案을財政委員會에 附議하야 可決식혓는데 本案은 同日午後 下院에 廻付되야 結局 一○七對五四의 多大數로 通過되엿다。이에 政府는 平價切下의 權限만안이라 金本位停止의 權限까지도 獲得하야 完全한 通貨獨裁權의 樹立에 成功하엿다。

뜨니스 前內閣의 總辭職原因이 財政通貨政策의 停頓 即 金本位維持의 困難에잇섯고 또金本位를 飽後維持하여가면서 白國經濟界를 振興식힐만한 自信잇는 後繼內閣이 업서서 十九日동안 新內閣의 出現을 보지못하다가 結局 政黨關係를 떠난 國立銀行總裁요 인플레論者인 반·질랑氏에게 大命이 降下된 事績에 鑑하야 보더면 이番 新內閣의 通貨政策斷行은 決코 偶然한 일이안이라 必然的結果로 볼수잇는것이다。

二

吾人은 一週日前에 本欄을通하야 金블럭의 危機를 論한同時에 金블럭中에서도 特別히 만흔困難을 밧고잇는 白耳義는 不遠한將來에 金本位를 離脫치안흘수업스리라고 論斷한바잇거니와 이에 그 豫想的結果는 나타나고야 마럿다。그러면 白耳義의 平價切下乃至 金本位停止가 列國에 波及하는 影響은 大體 어떠한것일까?

白國에서 平價切下를 宣言하자 英、米、日、伊等 官邊의觀測은 白國通貨 또는 貿易關係上 別無影響이라는 意見에 一致된 모양이나 此等諸國은 이미 金本位停止 또는 平價를切下한 나라이며 伊太利가튼나라에서는 아즉 正式으로 金本位停止는 斷行하지아니하엿다하드래도 獨逸과함께 極端的 爲替統制에依하야 其實에잇서 金輸出禁止同樣의 結果를보고 잇슬뿐아니라 白國의 國際經濟的地位는比較的 貧弱한것으로 볼수잇스니만치 此等列强에 至大한 影響이 잇스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그러나 白耳義의 貿易關係를보면 金블럭國互相間貿易額은 三四十%에 不過하고 그남어지六七十%는 金블럭以外의諸國에依存하고잇슬때에 英米日伊等諸國에도 影響이업스리라고는 밋기어렵다。

三

白耳義金本位離脫에 依하야第一打擊이 甚할나라는 佛蘭西、和蘭、瑞西、波蘭、룩센브르等 金블럭諸國이다。佛、和兩國政府도自國의 金準備 即 財政的基礎의鞏固를理由로 白國의 平價切下가 큰影響이 업스리라는意見을 發表하엿스나 白耳義의 인플레政策은 金블럭諸國에의 輸出을 增進하는同時에 此等諸國으로의 輸入을 阻止하게될것이다。또 此等諸國에는 資本逃避와 金의退藏이 보다더 激烈하야 그必然的結果로 金블럭諸國의 通貨不安定이 一層더 甚할것은 明若觀火의 事理이다。

以上은 金本位離脫이 齎來할 貨幣的 結果려니와 他國에 出現할 心理的影響도 決코 어예작지지안흐리만치 重大하다할것이다。即白耳義는 今日까지 金블럭의 重要한 멤버ㅡ國으로서 昨年十月 同國首都 뿌라셀에열린 七個國經濟會議를 通하야 金本位維持를 鞏石가티 約束한나라이다。이러한 白耳義가 입게 金本位를 離脫하는同時에 벨가貨의 貨幣의 約有를企圖하야 「스터ー링블럭」에 參加되엿다는 事實은 金블럭諸國國民의 金本位維持信念을動搖할뿐안이라 事實 金블럭自體의 崩壞를開始로 볼수잇스니만치 그影響은 甚大한 程度에 끄치지안흘것이다。

四

그리고 平價를切下한 白耳義에는 一時的이라도 인풀레景氣가 訪問할것이요 不遠한將來에 通貨政策에關한 國民投票를 잇을 和蘭、瑞西等國民이 白國의 平價切下에依한 景氣回復을보면서 오히려 金本位固執으로 不景氣를 甘受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이리하야 國際貿易上 그地位가 强大한 和蘭、佛蘭西까지도 金本位를 離脫하게될것이니 萬若 和蘭領印、佛印等을 重要한市場으로하는 日本貿易의打擊은 實로 宏壯할것이다。

이와가티 金블럭崩壞에 今番白耳義의 金本位離脫이 列國에 波及하는 影響은 그直接的影響보다도 間接的그것이 오히려 더 크다할것이다。

極東로카르노條約提言說
英米側注目惹起
可能性잇는問題로觀測
海軍豫備會談時데비스氏主張과關聯

【電通倫敦三十日發】莫斯科英蘇會談에잇서서蘇側으로부터極東安全保障條約案을 提言하엿다는風說에對하야은 蘇聯政府側에서는右風說을否定하고 잇슴에도不拘하고英米側의注目을 끌고잇스며 이든國璽尙書가 莫斯科로부터歸英함을기다려駐英米國大使는英國外相을訪問하고 詳細眞相에對하야聽取할 意向을갓고잇는 模樣이다 따라過般倫敦豫備會談에서도太平洋安全保障條約이話題에올나會際米國代表노만·데비스氏는如斯한條約이提案될境遇에는當然 中國及蘇聯의加入을必要로한다고强調한關係도 잇슴으로 一風說과갓치 蘇聯側으로부터 極東安全保障條約을 提議하엿다고하면其成立도 자못可能性을가질問題라는觀測이잇다

極東條約案提言 蘇聯側은否定

【電通莫斯科三十日發】英蘇會談에잇서서 蘇聯側으로부터 極東安全保障條約案을 提出하엿다는風說이流布되여잇는데 對하야蘇聯政府側에서는 左와如히全然此를否定하엿다

蘇聯側이 極東安全保障條約을 提議한일은업다 但極東平和維持手段에對하야 英蘇協力의方法이協議될줄로안다 何如든今同의英蘇會談의 具體的結果는 이든國璽尙書가 歸英하야閣議에서協議한 後가아니면發表되지아늘것이다 따라三十一日夜에發表할 豫定인公式콤뮤니케에도 相互友好裡에協議되엿다는外交辭令의 發表에끈치엿고內容에 對하여는 一切抵觸치안흐리라고觀測된다

策에言及하엿다 確聞하면 스타린氏는 三十日非公式會談에서再開을 提出한바極東政策에英國이 充分關心을表示하야어데까지 極東政局斡旋者로써의傳

英蘇接近의可能性
具體的으로增進
卅一日四次會談後波都向發
英蘇第三次會談終了

【電通莫斯科卅日發】三十日英蘇第三次會談은 莫斯科郊外에 잇는리트비노프外相의 農園別莊에서行하엿다 話題는英蘇協力에依한 歐洲及極東情勢의 改善乃至平和刷新과 英蘇兩國自體의政治的、經濟的友好增進이 中心이된 모양인데 그具體的內容은 이든 尙書가歸英報告를 行한後가안이면相互發表치안키로 되엿슴으로 種種에세이金넘한宣傳이 流布되고잇다 그러나 英蘇接近의可能性을增進한것은 各方面에서信하고잇다 右會談後 이든尙書는莫斯科로歸還하야夜에는 히스英國大使의 晩餐會에臨하야 蘇聯政府首腦部多數及英國諸紙通信員等과 會見 會談하엿다 이든尙書는三十一日 다시第四次의最終會談을한後 午後十時四十五分莫斯科를出發하야 다음歷訪地인 왈소우로向하야 二日波蘭政府首腦部와公式會見을行하기로되엿다

英蘇最後會談

【莫斯科三十日發聯合】莫斯科郊外 外務人民委員長리트비노프氏別邸에서開催된 英蘇會談은때마침蘇聯의休日임으로 全然非公式이엿스나 도리혀政治的意義는二十八、九兩日의公式會談보다優越하엿다고觀測되는데 特히스탈린氏가 極秘裡에自動車로 리트비노프邸에赴하야 이非公式會談에參加한것은 局外者에게全然不少한衝動을惹起하엿다 此等事情으로三十日의會談은 莫斯科英蘇折衝의總決算으로 甚히重要한役割을演出한것이라고觀測된다 會談은午後時부터開始되엿는바 前後二日에亘한討議에서 明白하게된英蘇兩國의見解를中心으로全歐의對策特스트레자三國會談의 對策과歐洲平和機構贊成의 具體的方策을

獨學勸奬文 (三)

徐椿

이만하면 獨學이 可能한理由는 알것이다。그러나 가튼學問을 獨學으로 修得하는것과 學校에서 배우는것과 어떠케 다르냐?하는 一點을 究明할 必要가 잇다。

兩者는 左記 三點에 잇서서 다르다。

一、學校敎育은 一定한 規律에 服從하며, 時間을 嚴守하도록되여 잇는데 獨學者는 規律과 時間에 억매우지 못하는 短處가 잇다。

二、獨學者는 見聞이 좁은 故로 東西古今 어느學者도 唱道해 본적이 업는 新學理를 自己가 發見하고도 이것을 모르고 잇거나 或은 自信이 업는 宇宙으로 누구나 다 아는 理致도 自己가 혼자 아는드시 생각하고 自慢하는 短處가 잇다。이에 對하야 學校에서 先生한테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弊端은 絶對的이라고까지는 말할수 업스나 比較的 업다。簡單히 말하면 獨學者는 固陋한데 學校卒業者에게는 固陋한 弊端이 업다。

三、學校에서 卒業한者에게는 卒業證書, 免許狀, 資格, 特典等이 부트나 獨學者에게는 이것이 업다。

그러나 獨學者의 用心如何에 따러서는 이 세가지 短處를 補塡할 方法이 自在하다。缺點第一에 對한 規律服從과 時間嚴守로 말하면 홀로 獨學者뿐만 아니라, 世上 어떠한 사람이나 自己가 目的한바 한가지 일에對하야 成功을 期하는 者에게는 絶對로 必要한것이라, 規律服從과 時間嚴守의 두가지가 업시는 아모 일도 成功할수가 업는것이다。

그러면 一定한 規律에 服從하며, 寸陰을 是惜하며, 所定의 時間을 嚴守하려면 그秘訣이 어듸 잇느냐?하면 이것은 오직 克己가 잇슬뿐이다。克己, 이것을 英語로써 셀프·콘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英語를 다시 飜譯해 말하면 自己로 自己를 支配하는것, 自己가 自己의 囚徒를 支配하되, 마치 刑務所의 看守가 囚徒를 支配하드시 하면 이것은 自己支配의 極致라고할것이다。刑務所의 囚徒들은 所定의 規律과 時間을 직히지 안코는 못백인다。섯고십허도 안즈라면 안저야 하고, 잠이야 오던 아니오던 起床時間까지 누엇스라면 누워 잇서야 한다。이와 反對로 제 아모리 잠이 오더라도 起床時間이 되면 이러나야 하고, 일을 할 時間에는 일을 해야 된다。다만 刑務所의 囚徒들 모양으로 남이 식히기때문으로 억지로하는것이 아니라, 自己自身이 定한規律과 時間을 가지고 이러케 꼭 직히가는것을 克己又는『셀프·콘트롤』이라고 하는데, 이克己心만 잇스면 獨學者의 缺點第一은 此를 歷歷히 克服할수가 잇는것이다。

또한 缺點第二의 固陋의 弊端에 對해서는 첫재는 한가지 科目에 對해서 될수 잇는대로 著作者가 다른, 여러가지 冊을 보며, 둘재로, 講演, 講習, 라디오를 通하야 各各 斯界에 有名한 學者의 말을 親히 드르며, 셋재로 가튼 길로 가는 學友와 서로 討論을 하며, 意見을 交換함으로써 그短處를 矯正할수가 잇는것이다。

다음 또, 缺點第三에 對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大槪 獨學者에게 對하야 登龍門을 열어주는 意味로 檢定試驗制를 둔다。日本과 朝鮮에도 그것이 잇다。檢定試驗制라는것은 受驗者에 對하야 中等程度以上, 各級學校의 入學資格者와 가튼 程度의 學識의 有無를 試驗하야 國家가 그資格을 認定하는것을 가르처 하는말인데, 이制度가 잇기때문에 例하면 中學校의 卒業이 업시도 專門學校에 入學할수가 잇는것이다。學校를 卒業한者에게만 許하는 職業의 資格試驗制라는것은 一定한 職業을 所定試驗에 合格하는 者에게는 誰某를 莫論하고 許與하는 制度이니 例하면 醫師試驗이라든가 敎員檢定試驗은 다 이것에 屬하는것이다。

日本의 檢定試驗制와 資格試驗制는 元來, 各種敎育機關이아직 未備할때에 잇서서 獨學을 奬勵하는 意味로 만든 制度다。그러나 今日에 와서는 敎育機關이 도리어 過多狀態에 빠저서 만흔 卒業者를 處置할 道理가 업시되엿다。이에 學校卒業者를 優待하는意味로 檢定試驗制와 資格試驗制를 漸漸 苛酷히하야 獨學者의 登龍門을 거이 막어버리는傾向이 잇슴을본다。그러나 歐洲의 法文學에 關한 大學을 廢止하는날이 오면, 그方面의 登龍門에 對해서는 萬人이 가튼 레벨에 서게될 것이다。(續)

日蘇不侵略條約
締結은이미確實
『리트비노프』氏의言明

【電通巴里三十日發】巴里의確實한側에入한 莫斯科情報에依하면 이든國璽尙書와의會談에際하야 리트비노프蘇聯代表는 蘇聯邦이 日本과何等의形式으로 不侵略條約을締結할것은 이미事實上確實하다고해도 조케되엿다는旨를言明하엿다

英蘇莫府會談의
經緯乃至收穫
集團的安全保障機構에一致

【電通倫敦三十日發】莫斯科의英蘇會談은 이미 前後三回의會談을 거듭하야 三十一日다시 最終會談을 行하기로되엿는데 右會談의經緯乃至收穫을 莫斯科에서 諸入電及英官邊의情報를綜合하면 大體左와如한것으로되엿다

一、第一收穫은安全保障機構가廣汎도集團的인組織을 基礎로하야 構成될것이라는點으로英蘇의意見一致가 相互間에認되고 獨逸이 局地的相互防衛條約結成方針을가지고잇슴에 對하야 英國은共同組織을主張하는데새로確實한同意者를獲得한것

一、第二의收穫은 英蘇協力에依한極東平和强化에 莫斯科政府가크다期待를 가지고잇는것이判明되야 英國이對極東政策上새로운一指針을加할수잇섯다는것

一、英國이極東平和工作에 어느程度까지 蘇聯을援助하야積極的態度를取할는지 具體的態度表明에 對하야는 다음機會에미루운것

一、英蘇經濟的協力에 對하야는 若干의「힌트」를 雙方이어든모양으로 通商促進乃至 크레짓트設定等에關하야 今後英蘇當局間에商議할機會가 强化되것

幣制變更必要
白耳義首相說明演說

【電通브럿셀三十一日發】반지랑首相은 上院에서幣制變更의緊急的必要에對하야 左와如히說明演說을行하엿다

一、現內閣은 佛國에經濟的援助를懇請하엿스나 右交涉은不成立으로終了되여 財政危局은愈愈化되엿다

一、後繼內閣이此를 救할唯一의方法은벨가貨를 金으로부터離脫하고또는切下하는것이다

一、切下率은 二割五分와三割과의間에 잇스나 月曜日의閣議에新프랑의 레니트를決定하기로하엿다

一、右와如히 切下率을決定한理由는 佛國의金本位通貨와스털링通貨와의 購買力의關係에서生하는爲替上無理를 調整하려는데잇다

一、벨가貨가 當分新平價의騰落한原形을保全치못할것이다

平價切下決定에 諸物價急騰

【電通브럿셀卅日發】白耳義國內는 平價切下決定의 影響으로諸物價는 一割乃至二割이急騰되엿슴으로 政府는物價의急騰이國民生活을 威脅할憂慮가잇슴으로十一日臨時閣議를開하고 物價統制의 特別方針을講究키로되엿다

西班牙內閣레氏再組

【電通마드리드卅日發】武器密輸事件에關連된將軍에對한 處刑宜言에關한閣內의 意見不一致로內閣은 放棄한 안벨드레루氏는사모라大統領의要請을 容認하야再組閣에着手하엿다

世界通史

通常議會終幕

多數重要法案의審議未了로 會期延長이 豫想되든 第六十七議會는 一般豫想에反하야 그대로二十五日로써 終幕을告하엿다 이번議會에서成立된것은 明年度豫算案과 此에伴하는臨時利得稅法案等뿐으로 米穀法案과 現內閣의産業政策을規定하는 重要法案의 多數는 거이全滅되고말엇다 今議會가어떠한不幸한結果로終了된것은 現內閣이 强力한政黨의支持가업는때

美濃部學說問題

美濃部博士의天皇機關說에 對한 善後措置問題는現內閣에賦與되든 緊急問題의하나인데 今般貴院에서 行한 岡田首相의聲明과政府內外의諸情勢를考慮하야 可及的速히 善處할方策을 講究할必要에迫頭되여 岡田首相은 마츰내二十九日定例閣議에 本問題를附議케되엿든바 具體的解決案作成은 首相에一任키로되엿는데 政界各方面에서는 自主的解決案으로 政府의具體的對策如何에따라서는 政治的으로 重大한波瀾이 惹起될것으로 그推移를 注目된다

多數가 議政工作에對한 自信이 업섯든것과 多數의贊同을 確保치못한데잇슬것이다

比島獨立案裁可

二十四日 루ー즈벨트米大統領은 過般比島議會를 通過한 比島共和國憲法草案에 署名하엿다 同案이比島人民投票에 付하야 可決되면 來十一月十一日에는 比島共和國政府가成立되고 共和國獨立紀念日 即一九四六年七月四日에는 米大統領은 比島의完全한獨立을宣言하야 完全한獨立國으로부터解放한다는것이다 그러나이法案이比島議會를 通過하엿슬때 共和國政府樹立하야 完全한獨立國이 實現될때까지 十年間은 米國의高等辨務官이 駐在하야 外交其他重要事項에 干與하게되며 비록 駐留은 完全獨立이 實施되는 時期로 比島로부터撤去하더라도 海軍根據地의 撤廢에對하야는 獨立後에다시 協議될것이다

英獨伯林會談

歐洲政局今後의動向을決定할 英獨會談은 二十五日 伯林에서 사이먼英外相 이든國璽尙書와 히틀러ー總統의 間에 開始되여 一、安全保障問題 二、再軍備問題 三、獨逸의聯盟復歸問題 四、東歐로카르노協定問題等을中心으로 二十六日까지 繼續하엿스나 히틀러總統의態度가意外로 强硬하야 못처럼實現되엿든 英獨會談은 거이無意味하게 終了되고 말엇는데 右會談의 所得이라면 獨逸의 反蘇的感情과 再軍備乃至舊領土返還要求가 極히强烈하다는印象을 준것뿐이다

英蘇莫斯科會談

英獨會談終了後 이든國璽尙書는 二十八日莫斯科에赴하야 힘스톤大使를帶同하고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長을 訪問하고 英蘇會談結果에對하야 討議한 다음 二十九日에는 스탈린書記長과 會見하고 第二次會談을開始하엿는데 리트비노프氏는 極東安全保障機構에對한 英國의 必要를力說하고 其外安全保障等에對하야 相互意見을交換한 다음 獨逸의主張에對해서도 協議하엿스나 英國은 어떠한條件까지 安全保障을 主張한다는데 對하야 蘇聯도 此에滿足하는意見을 表明하엿다

白耳義平價切下

白耳義下院은 三十日財政委員會로부터 廻付된 金本位停止及 二割五分乃至三割의平價切下를包含한 貨幣變更案과 新貨幣運用의特殊獨裁權을 今後一個年間政府에賦與하는 案을審議한結果 社會黨의態度變更으로 마츰내一○七對五四票로 此를可決하엿는데 질랑內閣은 이것으로 下院의信任을 確保하게되엿다

辭令

依願免兼官 京城高等學校長 兼京城帝大敎授 佐藤 剛藏
公立高等普通學校長 和田 英正
勅任官으로待遇 公立實業學校長兼敎諭 常松 侃
免兼官 專賣局副事務官 吳 亨 植
同 須磨源三郞
道理事官 豊永 義彦
同 吉田 纖衞
道視學 森西武次郞
公立中學校敎諭 遠藤 錦三
公立高等女學校敎諭 五十嵐아이
同 小宮山고우
公立普通學校敎諭 高橋 正一
公立實業學校敎諭 田頭 秀雄
道視學 地坂雄左衛門
依願免本官

機關說問題
政府의方針決定

【電通東京電話】美濃部學說問題解決에關한政府의方針은 二十九日岡田首相以下 關係六相會議에서最後決定되엿는데 그內容에對하야는 各方面에對한影響을 重大視하고 嚴秘에付하고잇다 그러나政府로서는 單히事務的處置策에끄치지안코 政治的善處에依하야 滂湃한反對運動의 禍根을一擧에解決하려고策하고 잇는것으로 보인다 即

美濃部學說이 思想的政治的問題로서 論議의中心이되데對하야는 美濃部博士로社會上의責任을負할것이라는見解에基하야 博士에對하야自發的으로貴族院議員、帝國學士會員을 辭職하도록 交涉하고그實現을기다려

內務省에서는 安寧秩序를紊亂하는것이라고 問題된博士의著作物의發賣를禁止하고 機關說의字句를一切消滅케할것으로觀測된다

그리고 博士는 그信念이 자못强하야 自己學說이 何等國體觀念에 影響을미치는바 업슴으로 조금도 公職을 辭할必要가업다고하고잇슴으로 事件解決까지에는아즉도 迂餘曲折이 잇슬것으로이는데 美濃部博士로서도世論의沸騰과今後邀移를 顧慮하야結局政府의 慫慂을容할것으로觀測이로政府는 問題의一段落을기다러各關係大臣의 名義로各各政府의態度에 對하야聲明을發하고今後方針을 闡明할模樣이다

著書改訂要求 不肯하면强制措置

【東京電話聯合】政府는天皇機關說問題의 圓滿解決을圖할려이다 그리고目下司法當局에서慎重取調中인 美濃部博士에關한不敬罪告發事件의 落着도在하야 政府의態度로서는그起訴、不起訴處分決定과 前後하야于先內務當局으로부터美濃部博士의 著書『憲法撮要』『憲法精義』等에 對한改訂을要求하야萬若不肯할境遇에는 何等强制措置(改訂、削除)를講究하리라고觀測된다

米日爲替反落

【紐育三十日發聯合】今日의米日爲替 前日과의比較
賣 二十八弗十二仙 六仙低
買 二十八弗 九仙 四仙低

中國銀行株主總會
政府案無修正通過
國府의通貨統制實現乎

【電通上海卅日發】國民政府財政部의一億圓公債發行에依하는中央、中國、交通三銀行의增資案은右三行의政府持株를中央三千萬元 中國一千五百萬元 交通一千萬元을增資하야政府의統制力을 據立하려는데서나온것으로 이때문에今日午後中國銀行은同銀行公會에서株主總會를開하고政府案을全部承認하야

一、現在資本二千五百萬元(其中政府資本五百萬元)을 二千五百萬元으로增資하야政府의資本을 三千萬元으로하는案

以外에 監査役의 增員을하엿는데民間側理事로부터反對論이나와 政府의 增資를 千五百萬元으로할民間과 政府의 資本二千萬元으로하야 合四千萬元의 增資案으로하라는 政府側의統制에 反對氣勢를表示하게되엿스므로 新理事會에서孔財政部長과折衝키로 되엿다

日曜氣配

◇期米＝石井의 買玉肩替로正米의動向이注目되여 買氣委縮이나아즉期日엔는 模樣氣配不變

◇株式＝白耳義의 金本位放棄와歐洲의 金블럭崩壞의危機切迫에對人氣이 나氣配不變

大新	八八、八〇
東新	一四四、六〇〇
鐘新	一三三、五〇〇
日産	一〇一、三〇〇

◇綿絲＝小甘

八面鋒

近來 東京 大阪地方의 資本進出로 朝鮮은 때아닌 景氣를呈出

◇

日 地價昂騰、日 農産物價騰貴、日 物貨輻湊、日 工事場擴張等等。

◇

이現象이 暫時的이나 正常的이냐를 區別해 觀察할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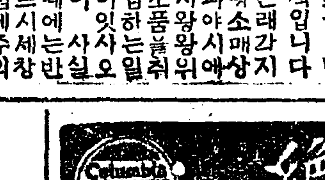
男女小、中、大學 開學式 今日로서 一齊擧行。靑春男女의 前途에 光明잇거라。

◇

五月政變說이 벌서부터 流行。그러나 事實은 두고보아야 알일。

今日本紙四面

純正商標見本



독일제
원조 조선세창갓표바늘은 물끼잇는손으로 (강철)문대도조금도변치안는것이특색입니다
근래각지방소매상과야시에왕왕위조품을취급하는일이잇사오니사실반드시세창에주의하야주시압

營業案內中越進呈
藥 御問屋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新井藥房
電話本局 四〇九一、〇六八 九〇四三、四四八
振替京城 一一六番

京
仁川府支那町
直輸入 販賣商 同福公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
總賣店 李泰漢商店
電話本局 二五一三番

營業目錄
各種車油、輕油、石油、發動機
農工用諸機械、器具一式
各種發動機、部屬品修理
諸高級精米麥機製粉機
ヒューガル、バチガール、ポンプ
FBS高級ボールベアリング
シヤフト、メタル、革車、鐵管
高壓マグネツト、スパークプラグ
各種電氣モータ及附屬品
各種ピストン、リング機械油
歐亞米商會機械部
全北金堤邑本町

謹告 大阪貿易社解雇社員洪鳳裕 尹榮哲等이書類携帶하고地方巡廻하며詐欺行使하오니注意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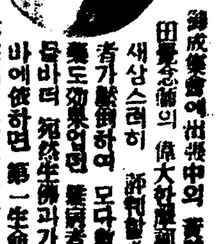
自轉車 材料 原價奉仕
製造元より直接出荷へ 信用絶對 問屋
特典 付 商報價表 進呈
最高級新案車日英保險付 七四五 円円円
實用優美途替德用車 十二円
仕上吟味堅牢中古車
出物太リヤカー
東京市日本橋區江戶橋二
名實共のエスエム號製作
帝都隨一の自轉車輸出 外國貿易商店
電話日本橋三七〇二番 〇四一 英元六 自轉車 光榮

高級社員採用
社員資格 二十二歲以上의學力相當한敎養이잇고年齡二十二歲以上 希望者는左記住所로 履歷書送付하라
駐在地 平壤、安州、定州、宣川、新義州、江界、北鎭
京義線事業 野村生命保險株式會社 西鮮出張所

債權 賃金 手形 買掛代金等 貸金 右債權을擔保로金融貸出도하며 又는取立도受任합니다 京城府若草町一〇六 三榮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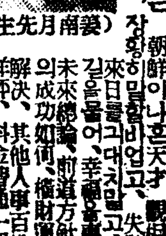
(米) 朝報案內

一大靈場으로 化한御成集會所
奇蹟的靈効者頻出



旣報 御成集會에出張中의 靑森縣三山靑外局 田豐志師의 偉大한靈効는 日으로 새롭게 상스러히 ...者가 多數라 數年來의 難病者도 十數年來의 痼疾病에 ...

奇人神談의主人公
東洋 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 姜南月先生에



(姜南月先生)

姜南月은 果然어떤한才士인가 그는사람을대하는 즉시 過去、現在、未來를 선듯判斷하는 朝鮮이 나흔天才觀相家이다 그의神通은一般識者의定評이 잇스니 장황히 말할바 업고...

京城府昌信洞六八七番地 東大門越便銀房側골목入 姜南月觀相所

京城中林洞一五五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李圭元
電話本局 三三一八番
振替口座京城 一一二八番

登錄商標 京城 登錄商標
고무靴界元祖
大陸고무
總販賣部 京城鍾路(商業中部) 電話光化門 長 七六五番 振替口座 京城 七三三三番
總販賣部支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南大門市場越便) 電話本局 七五四番 振替口座 京城 三七七五番

特許商標
朝鮮特許代理局
京城光化門ビル(電光二三七番)
無料相談部特設技師辨理士專任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產婆 金奉允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安國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一二三)

가종 청산고 에움 히 벡고

佛語講習員募集
一、新學期 四月五日ヨリ每週二回水曜、金曜午後五時ヨリ八時
一、講師 京城帝大講師 에미르마르텔氏 京城帝大敎授 船田享二氏
一、會場 長谷川町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內
一、月謝 二圓
詳細ハ下記へ御尋ネ下サイ 京城府北米倉町九四 土藤武城氏(電話本局四八二) 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內 洪陽明氏
京城日佛協會

▽電氣部 豫科 本科 ▽土木部 豫科 本科
財團法人 京城電機學校(晝夜) 生徒募集
◇入學資格＝小學、普通學校卒業者
◇入學案內＝要郵券二錢
京城古市町 電本二二三

◇高等專門學校受驗生 ◇中學部第一學年
京城高等豫備學校 生徒募集
◇入學案內願書用紙…要郵券二錢
京城古市町 電本二三三

對岸에共產軍熾盛 移住同胞續續避難

李紅光軍等撫松縣으로移動

人心은極度로不安

【咸興】 지난삼월 이십구일 오후구시경 림강현십삼도구 대호동분(臨江縣十三道溝大湖東岔) (강안으로부터약삼리)손수강(孫樹江)의목재작업소에는 약백여명의공군(계통불명)이래습하여동부지소감독급 서기에게서 십삼도구시가지급 조선내추요개소의 경비상황과 아울러압록강의 해빙상태를상세히 청취한다음 십삼도구시가지를 습격하려고 부대를분파하여출발할지음 그중한사람이 그롯방면에 진출하여 양사령(楊司令)발포하여 인부일명을 주상식히엿다는데 이로인하야 출발을연기하고 대기중이라한다 십삼도구내재산가들은 벌서부터 조선내로 피난하기시작하여 삼십일 오전까지피난자 백여명에 달하는형편으로당지일대인심은 극히 흉흉한중에잇스며 공산군 리홍광(李紅光)급흔명군의 합계삼백여명은 그후사도구벽지로부터몽강현(濛江縣)방면에 진출하는 수백명과 련락하여주요지습격을 회책중 양사령이인솔한이백여명이 작이십일 오후오시경에 도구병지고참자(二道溝擁古砬子)부근에서 마주군약삼백여명과 충돌되여 수시간격전끄테상황방면으로 격리되엇슴으로 리홍광군은 양사령군과는 련락못하고다시무송현(撫松縣)에나흥으로장백현(長白縣)에이동하리라고한다

七十戶三百餘名 密陽서延安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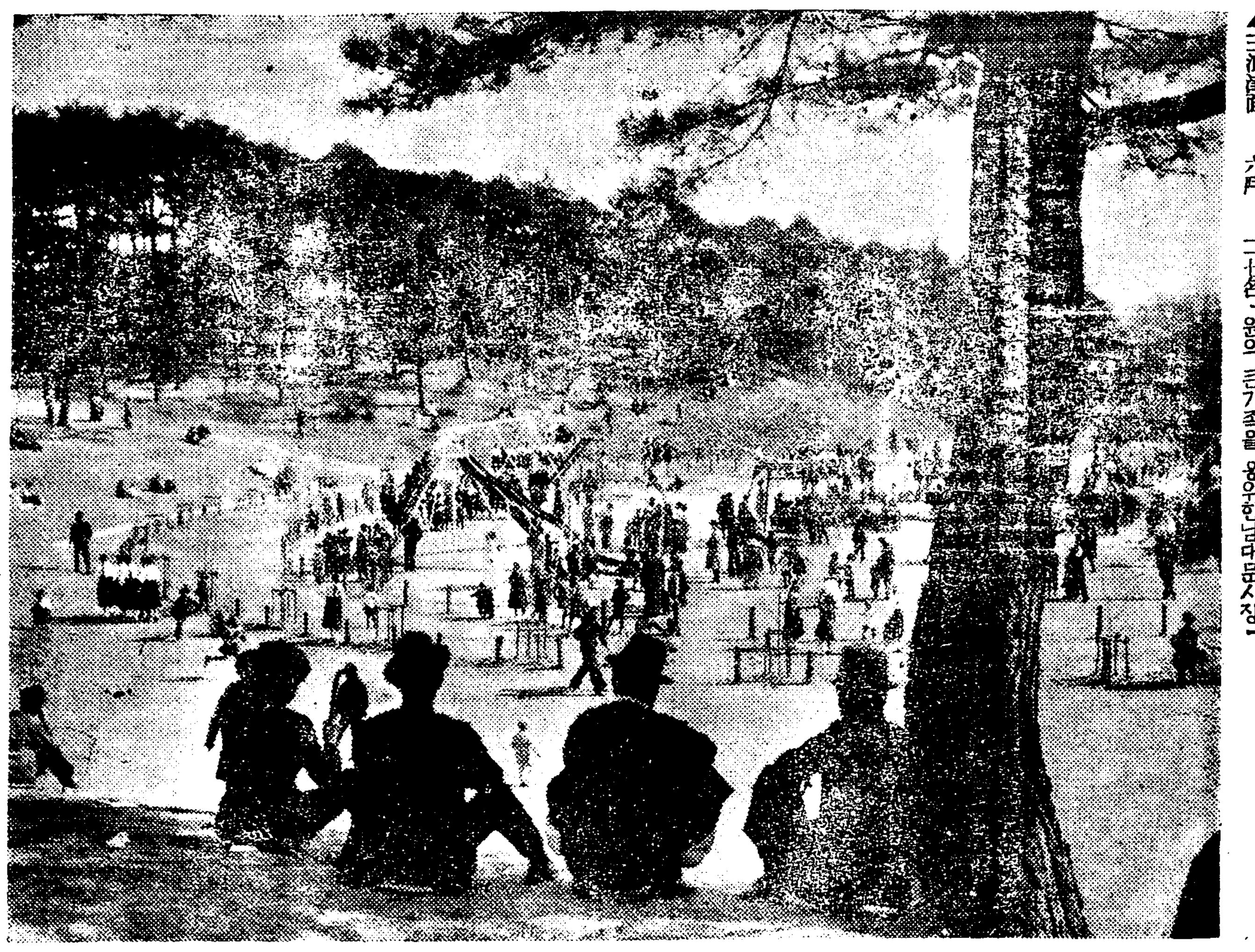
눈물흘리며친지친척작별하고 故鄕을떠나는移民들

【密陽】 경남밀양(密陽)에서는지난삼십일오후한시반 밀양역발 북행렬차로 또칠십여호삼백칠십사명의 수재지이재민이 황해도연안(延安)군동척회사(東拓會社)농장으로 이주하엿다는데 서조선지방어민은 이번이 두번째로엿두에는 고향을떠나게되는 서러움에북밧처 터지는 우름소리로분홍맛나 만발한꼿들도 무색한것가텃다 면별이민수효는다음과갓다한다

▲上南面 二〇戶 一〇七名
▲下南面 四五戶 二四〇名
計 七一戶 三七四名
▲三浪津面 六戶 二七名

南門市場商人聯合運動 五月初開始

이백여상점의 회원과 일천여명점원의 큰가족을 옹위한남대문시장 상인연합회(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에서는작년에 제일회로상인련합회운동회를 열어 호성적을냐닷스므로 금년에도 제이회의준비에 동련합회에서는 상무리사 손완영(孫完榮)씨를위시하야기라가여원이분망중인데 금번은 오는오월첫일요일에 동대문박식은운동장(殖銀運動場)에서 개최 하리라는데일반회원의참가가만키를바란다고한다



◇……日曜日의昌慶苑……상춘객으로대혼잡

양춘삼월도오늘로써다하고 래일부터는 꼿사월의첫날을맛게되야 아즉도봄치위가옷속으로숨어들기는하나 그래도 사월놀다아오는 꼿가지는동울이봉긋을라신이화(李花)는 이미버러지게시작하고 「사구라」는최후한전의생은청울간지려고잇는위에 삼십일일은 일요일이자일기가 절호하야거리에는 사람의왕래가복잡하얏다 오래간한에 방안에서 사무실에서해방된 도회의사람들은 그동안주리엇든봄을 탐하야창경원으로 창경원으로 몰려들어 오후한시까지에 무려오백여명의 입장을보엿고 원내의이구석저구석에는 「피크닉크」온가족의자미로운야연(野宴)이버러젓고 식물원김어던위아동유원지에는 소년소녀의웃음소리가 물끌한후시실로 큐동하는만자천홍을이루어삼월최후의일요일을축복하는듯하얏다

通溝잇는醫師 二等賞當籤

만포지국에서전달

【滿浦】 본적을강계군외귀면(江界郡外貴面)에두고 만주국안현통구성내(滿洲國安縣通溝城內)에서협성의원(協成醫院)을경영하는김성하(金聖河)(三七)씨는 본보를통하여 오던바금번처음으로 행운권 추첨에이등상을 당하얏다 감사한뜻으로말하엿다 감사합니다 저는귀보창간 호로계속 애독하엿든바 금번이와가치만흔 독자중에 당첨되엿스니 무엇이라고 감사의뜻을 들일수업습니다운운

쌀갑슬橫領逃走

삼십일오후일곱시오십분경에동대문서관내충신동(忠信洞)이십오번지리상문(李商文)(四九)의집에잇는포천군창수면신흥리(抱川郡蒼水面新興里)이백륙십이번지에 본적을둔조해영(曺海榮)(二二)은주인이봉래정(蓬萊町)삼정목 류상점(柳商店)에갓다주라는쌀갑 일백칠십원중에서 오십원만갓다주고 나머지일백이십원을 가지고 어대로도망해버렷다 보고를바든 소관동대문서에서는 방금각처에 수배하고범인을찾는중이다

義州郡於赤島에 土兵隊廿名出現

今日,住民二名을拉去

【義州支局特電】 삼십일일오전한시 게통불명의 토병단삼십사명이 장총피스톨을 휴대하고 평북의주군주내면 어적도(義州郡州內面於赤島)에 나타나김효국(金孝國)외 일명을 인질로붓잡어가지고 대안 마의산(馬耳山)으로다러낫는데의주경찰서에서는수야(水野)서장이하이십륙명의경관대가주격중이다

前妻所生을毆打 三歲兒致死暗葬

春川邑內二十一歲의少婦가 警察은引致取調中

【春川】 지난삼십일일오전세시경에 강원도춘천읍 봉의정(江原道春川邑鳳儀町)구십번지에사는 김규삼(金圭三)의처송영춘(宋永春)은 전처김규삼의 장녀김영종(金榮鍾)(三)을 구타하야드듸여사망케하얏다는데 이사실을 탐지한소관춘천경찰서에서는이십팔일에시체를매장한공동묘지에서시체부를하야본결과 구타치사한것이 분명하다하며 그원인은뭇건대 전기김영종은 일쯕이김규삼의 전처이든박복순(朴卜順)이라는 녀자의소생으로전실자식이라고하여 가증 마음내이가리죽인것이라한다

運動競技

日本의覇者 東大籠球 來七日에入京

日本籠球界의覇者 東京帝大籠球軍은日本籠球協會朝鮮支部의招聘을바다 京城에來征한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 一行十五名은 來四月六日午後三時京城驛着「노조미」로入京할터이라는데 이와對戰할各팀들은緊張한가운데 連日猛練習을거듭하고잇다한다 京城에서의競技日程은 다음과가트며 개임은京城運動場(雨天이면鐘路基督靑年會館)에서 行할터이라하며 同軍의平壤遠征은 아직未定이라한다 그러고全京城OB팀멤버에 이미發表한外에金化泳(全普專)、 金在春(三二)兩君을 追加하엿다 한다

▲四月九日午後三時對全京城OB팀
▲同十日 同上 對全延專팀
▲同十二日同上 對全普專팀
▲同十三日同上 對全京城팀

【帝大籠球陣容】
監督 今井
F=金子(成蹊) 同畑(武藏) 同三浦(武藏) 同水越(四高) 同河野(成蹊) 同蜷永(山口)
C=田中秀(成蹊) 同中江(成蹊) 同鹿子木(武藏)
G=主將相馬(浦和) 同淺野(甲南) 同小原(新潟) 同長澤(浦和) 中은出身校

【東京帝大戰歷】
▲昭和七年六大學리-그優勝 東西對抗 優勝
▲昭和八年六大學리-그優勝 全日本選手權優勝 東西對抗 優勝
▲昭和九年六大學리-그優勝 全日本選手權準優勝 東西對抗 優勝
▲昭和十年全日本選手權優勝

統計가말하는 朝鮮의體育熱 YMCA二年間統計

半島體育界에서 가장오랜歷史를자랑하는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體育部에서는 지난二年間을通하야同體育館, 大講堂또는後庭等의使用會員과및 體育關係觀覽者等의延人員數를表示한 統計表를發表하엿는데 籠球、 拳鬪、 體操、 柔道等各部門을合하야 一九三三年은 關係延人員數六萬二千七百三十四人이며 一九三四年에는 七萬一千七百六十八人이다 그리고同部의主催及後援各種大會後計表를보면 一九三三年의 開催日數가 七十六日인데出場延人員은三萬八千三百八十七人이고 一九三四年에는 七十五日인데 關係延人員數는四萬三千七百六十八名으로 朝鮮의體育熱이 年復年高調됨을如實히證明하고잇다

對全日本學生卓球 朴盛泰君善戰

全京城對全日本學生聯盟卓球戰은 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來靑館에서열리엇는바 前日의全敗를雪辱코저京城軍奮戰하고잇서 朴盛泰君이 好調를보이며 川村을三對一로이겻다 (夕刊마감까지의戰績)

【日本學聯】		【全京城】
唐宮(立敎)	3…0	甲斐(商專)
吉庄(早大)	3…0	朴在翰(總府)
川村(立敎)	1…3	朴盛泰(京商)
奧田(日大)	―	金相赫(總府)
山田(日大)	―	曹明煥(總府)

米國籠球팀日程

米國西部各大學出身 選拔籠球팀一行은 監督런더-손氏引率아래 來五月六日 大洋丸으로 日本에遠征케되엿는데 東京에서의競技日程은 다음과갓다
▲五月十一日 對東大 ▲同十二日 對全日本學生 ▲同十四日對全日本

當選된彩票의 萬圓을沒收

과료오십원까지바치어 鎭南浦商人의此惡夢

【平壤】 일만원의채표(彩票)가운조케당선되여 갑작부자가 되엿든것도일장춘몽으로 되엿슬뿐 안이라수중에드러왓든일만원은차압을 당한후 설상가상으로 과료(科料)십원의 판결까지바든 올지도못하고웃지도못할장면을당한남자가잇다 진남포(鎭南浦)출생으로 신의주운정정(新義州雲井町)에거주하는해륙물산중개업리시걸(李時傑)은작년구월이십오일만주국에서발매하는 채표한장을 사서추첨한 결과 운조케 일등당선이되여일만원을 부둥켜안고 깃븜에날뛰며고향에 돌아왓든바 알지못해주엇스면 꼭조흘것을 경찰이 기어코알어가지고 략식명령으로 남은현금구천사백오십원은 몰수하는 동시에 과료오십원에 처하엿다 이것을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되여 평양지방법원서전(西田)판사에게 심리를 밧고잇더니 삼십일공판의 결과는 잔금구천사백오십원은 몰수하고 과료십원에 처한다는판결이나리어 피고는 불복공소할모양이라한다

自働車轢兒

삼십일오후아홉시경에 동대문바깥 창신동(昌信洞)일백칠십오번지아페서 왕십리(上往十里)칠백이십팔번지 고상운(高尙雲)의장남만석(萬成)(?)은때마침 청량리방면에서 달려오든청량리뻐스한창만(韓昌萬)(二)이가운전하는 자동차에치어서중상을 당한것을 종로오정목 동부실비진료원에운반하야치료중인데전치까지 삼주일가량의 상처엿다고한다

『에젤』이修羅場化 싸홈패로소동

▼거리의엔젤로자처하는 『에젤』이 싸홈패로소란하다가 종로이정목 삼십이번지카페『엔젤』에는 삼십일오후여섯시경에 손님한사람이 드러와서 술을먹고는그집사람들과 싸홈이나서 소관종로서에 검속되엿는데 취조한결과 그는옥구군대야 면산월리(沃溝郡大野面山月里)이백륙십팔번지에 본적을둔일명『싸홈패』라고부르는송우홍(宋宇紅)(三一)으로서 일즉 부려경찰의『뿔랙리스트』에 올른사람이여서그서에서는 엄중히 처분하리라한다
▼……가튼날오후여덜시경에가튼『엔젤』에서술을 먹고엿다가 역시그집지배인과 싸홈을하다가 일시종로서에 검속되엿든손님이 잇섯는데 취조한결과 그는 효자동(孝子洞)일백오십륙번지주한명수(韓明壽)(二六)로판명되엿다고한다

好景氣바람에 商人이大脫線

세상이 너무호경기인까닭인지 상점주인도 사나워진다 이십구일오후여섯시경에시내서대문정일정목사십구번지목공업정수용(鄭壽容)(三七)은 술이대취하야 마친불건사려온중림동(中林洞)일백이십팔번지의이십호세탁업안지현(安趾鉉)(三〇)에게 합부로 폭행을가하고곡례인코-드』까지찟다가 순찰하든종로서원의 눈에띄여서 검속되엿다한다

酸素『탕크』爆發로 醫務員二名重傷 咸南朝窒病院慘事

【咸興】 지난이십구일 오전십시경흥남읍조질회사(朝窒)부속병원 렌트겐실 산소탕크에 불이나서 일대음향과함께 유산탕크가 폭발되여의사일명과 조수일명이 중상을 당하엿다는데 원인은 아직미상하다고한다

乞人生活에絶望 飲毒한젊은이

거리의룸펜에게 봄은자못덕(德)이업나보아서 시외신당리(新堂里)이백이십팔번지 민윤식(閔允植)의집에잇는일룸펜박덕춘(朴德春)(二五)이라고하는쓰레기통을뒤지고대기는걸인군은삼십일오후네시오십분경에신당리이백이십오번지음식점천복순(千福順)의방에서음식을청해노코는그마저집는양음먹고 자살을계획하엿다 방금 부민병원에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은 위독하다는데 원인은희망업는 거지의생활이 귀치아니하야이일을비관한것이라고한다

賭博團大檢擧

【金海】 경남김해군장유면(金海郡長有面)에서는 중년청년이백여명이 지난이십구일에 동면 내덕리(內德里)뒷산에모이어 윷을놀고 잇는것을 김해경찰서원육명이자동차로현장에출동하야 여량검거를 하고엄중취조중이라한다

무서운拾得物

【平壤】 삼십일오전열시경에 평양헌병대에는 신양리(新陽里)파출소에서 진관(眞管)까지부러잇는포탄(砲彈)을 가지고 오게되엿는데 이포탄은 대동군재경리면(大同郡在京里面)에서 헤든것이 굴러서 평양부내에까지오게되엇으로 방금보병칠십칠련대에 조회중인바작년가을 대동군관내에서 연습실시하든중 떠러트린것이아닌가생각된다고한다

라디오

三十一日(日曜)

◇午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喜프만의배노래……오펜박호作曲 二、락、파로마……이라듸어作曲 三、第三樂章론도……作曲 四、신곡아베로카밴드編曲 五、組曲 가르멘에서……비제作曲 宋 一 古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人生과苦痛 申 公 淑
◇同七時三〇分 歌曲 一、界面 二、弄 三、羽樂 四、界樂 金春紅 李桃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七時五五分 라듸오、드라마 淚의谷全一景 配役 仁植(二十五六歲의靑年)…安丁浩 永淑(二十歲前後의女子)…河順伊 先生(四十歲의中年男子)…李靑玄 其他數名
◇同八時二〇分 唱劇調 一、短歌 中高音 二、唱劇調 沈淸歌 楚漢歌 申錦紅 鼓手 池龍九
◇同八時四五分 名曲鑑賞(레코-드演奏) 빠이올린協奏曲 D長調作品六十一 (빼이토벤作曲) 빠이올린獨奏 요세프・시게티 管絃樂 브뤼노・왈터指揮 브리티쉬交響樂團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朴 慶 浩

四月一日(月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길군악 二、山念佛 三、靑春歌 四、방아타령 五、樂山歌 唱 崔錦成 鼓 高載德
◇同一時(大) 第十二回全國選拔中等學校野球大會實況 ―甲子園野球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 원숭이의報恩 沈 宜 麟
◇同六時三〇分 講演 經濟解說 金 洸 鎭
◇同七時三〇分 講演 森林과使命 金 東 燮
◇同八時 피아노獨奏 一、배노래 二、圓舞曲D샤-프短調……쇼팡作曲 三、가라앉은寺院……드뽀시作曲 四、세기될리아……알베니스作曲 五、물의… 六、「세으렌지의사랑」의行進曲……프로코피에프作曲 알로르뇨르・루-빈슈타인
◇同八時三〇分 浪花節 京浪歌舞 (二)
◇同九時 京城歌謠 一、時調 二、小春香歌 三、제비가 四、執杖歌 張香蘭 孫靜

曆

四月一日(月) 陰二月(小)二十八日 丁未・水・張・定
●祭祀・冠帶・時刻은巳時坐向은正南・移徙・裁衣・動土・上樑・已時
▲納財에宜함
▲淸明 六日(陰三月初四日)
▲穀雨 二十一日(陰三月十九日)

各學校合格者

梨花女子專門

▲文科豫科 (志願二〇中 一七名) 金子玉(同德) 趙敬姬(同德) 李恩徽(樓氏) 趙洵姬(樓氏) 文昌淑(進明) 崔金順(群山) 鮮于惠國(梨花) 吳貞順(梨花) 元善寶(梨花) 李承義(龍谷) 趙善信(永生) 鄭華英(培花) 李福瑞(京城) 龐鳳娘(牛込) 金一順(進明) 鄭忠良(淑明) 朱敬恩(進明)
▲音樂科豫科 (志願四一、合格二六名) 鄭和英(好壽) 李蘇玉(好壽) 尹正玉(好壽) 白淑玉(好壽) 張然珠(好壽) 金明淑(樓氏) 崔朗恩(正義) 柳順德(正義) 金恩敬(梅光) 丁春禮(梅光) 金永實(崇義) 文炳珠(崇義) 桂逢榮(崇義) 洪恩惠(馬山) 金明賀(梨花) 朴奉姬(梨花) 金玉德(崇義) 張淑姬(京城) 金興一(京城) 申敬德(京城) 金千鶴(京城) 金遊愛(京城) 金英玉(京城) 李能今(培花) 李貞蓮(培花) 金中心(培花) 洪玉仙(梨花) 金得暉(進明) 張恩田(崇義) 姜貞熙(梨花) 趙成女(永生) 金敬愛(永生) 崔瑞海(大邱) 鄭鎭生(全州) 崔在興(沙里) 楊寶理(沙里)
▲家事科豫科 (志願七〇 合格五〇名) 陳鳳女(樓氏) 南相守(樓氏) 李熙淳(永生) 朱德順(好壽) 朴順益(好壽) 張善德(正義) 孫致玉(平女) 李玉順(南浦) 金性子(梨花) 金德順(梨花) 金福永(龍谷) 朴恩緖(龍谷) 趙胤淑(梨花) 韓正順(培花) 李元淑(培花) 甘仁錫(京城) 洪福妍(光州) 盧玉人(樓氏) 裵桂花(樓氏) 申玉南(永生) 柳得秀(好壽) 李順鳳(好壽) 黃貞姬(正義) 洪福子(元山) 柳元石(南浦) 金千蘭(梨花) 禹永寶(崇義) 李永喜(龍谷) 孫英子(梨花) 金淑命(梨花) 李聖姬(培花) 辛寶麗(海州) 吳興寶(海州) 盧信愛(沙里) 姜鳳吉(樓氏) 史亨淳(樓氏) 崔貞信(永生) 兪貞熙(好壽) 卓福寶(正義) 朴貞緖(正義) 金泰淑(海州) 宋仁愛(梨花) 金貞寶(同德) 金貞淑(淑明) 朴順玉(龍谷) 金爽德(梨花) 鄭順禮(培花) 元致瓊(培花) 李金子(公州) 宋貴蓮(大邱)

梨花保育學校

(合格三三名) 金惠玉(平女) 金甲孫(好壽) 朴鳳玉(好壽) 金大玉(南浦) 邊恩惠(樓氏) 曺福珠(大邱) 全明玉(樓氏) 林貞福(永生) 李永嬅(永生) 金秀貞(永生) 金順愛(永生) 金永淑(永明) 金鳳赤(光明) 李尙基(崇義) 吳原福(信明) 金泰娥(淑明) 李慶順(進明) 趙淑媛(梨花) 李明浩(崇義) 李玉緣(培花) 閔蕙植(同德) 朴有分(同德) 宋在信(梨花) 李美子(梨花) 洪鍾淑(培花) 朴幸媛(培花) 金玉嬉(培花) 劉丁順(培花) 藥後鳳(好壽) 李向娥(淑明) 金貞淑(進明) 李 瓊(大邱) 楊順玉(梨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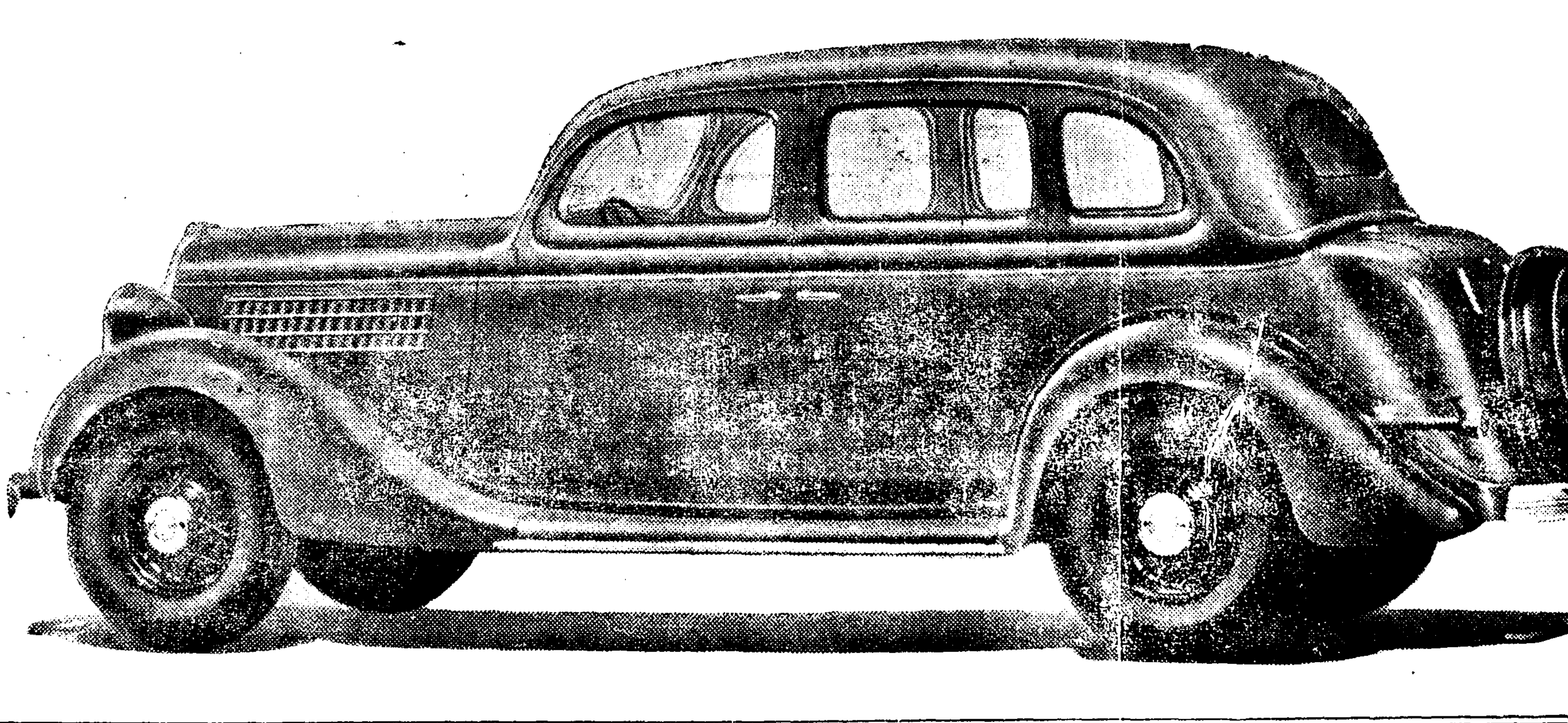
京城師範講習科

(男子) (四十四名中 朝鮮人三十一名) 韓炯誠(咸興高普) 金鶴何(五山高普) 金啓述(中東學校) 金鎭宅(養正高普) 金濟東(京城第二高普) 金相熙(淸州高普) 金智洙(徽文高普) 金炳瓚(京城第二高普) 金鍊珠(徽文高普) 許 璘(普成高普) 嚴昌燮(養正高普) 玄石榮(普成高普) 權秀天(普成高普) 崔昌林(京城第二高普) 崔廷爛(普成高普) 崔德周(晋州高普) 車益敎(京城第一高普) 沈昌燮(光州高普) 全敎翊(普成高普) 沈明彦(徽文高普) 張庚鎬(京城第二高普) 趙芳衍(徽文高普) 丁完鎭(徽文高普) 鄭東萬(京城第二高普) 湯錫峰(普成高普) 方榮亨(京城第一高普) 朴商玧(普成高普) 朴貞善(中東學校) 李榮淳(京城第二高普) 李華榮(松都高普) 李起馨(培材高普) 李恩益(淸州高普) 李康世(培材高普) 李相赫(普成高普) (括弧內는 出身校)

天氣豫報 晴一時曇

高氣壓은 中國中部로부터 朝鮮에퍼지고 日本의東北地方으로부터 北海道까지는氣壓이놉고 北滿洲는氣壓이낫다 全朝鮮은快晴하고平穩하다 明日은天氣가조코 따뜻하다
最高 一一、〇
今朝最低 零下一、三
今日正午 九、三

陳列會案內



出現!
一九三五年式新型또-드
탈수록이절수업고
볼수록기막힌

弊店店員一同은 여러분의來臨을 기다리고잇습니다
場所 楠本商店
時日 昭和十年四月 一日、二日(兩日)

日本또-드特約販賣店
京城府若草町二四
楠本商店
電話本局 二五四 九三二 七五三 五三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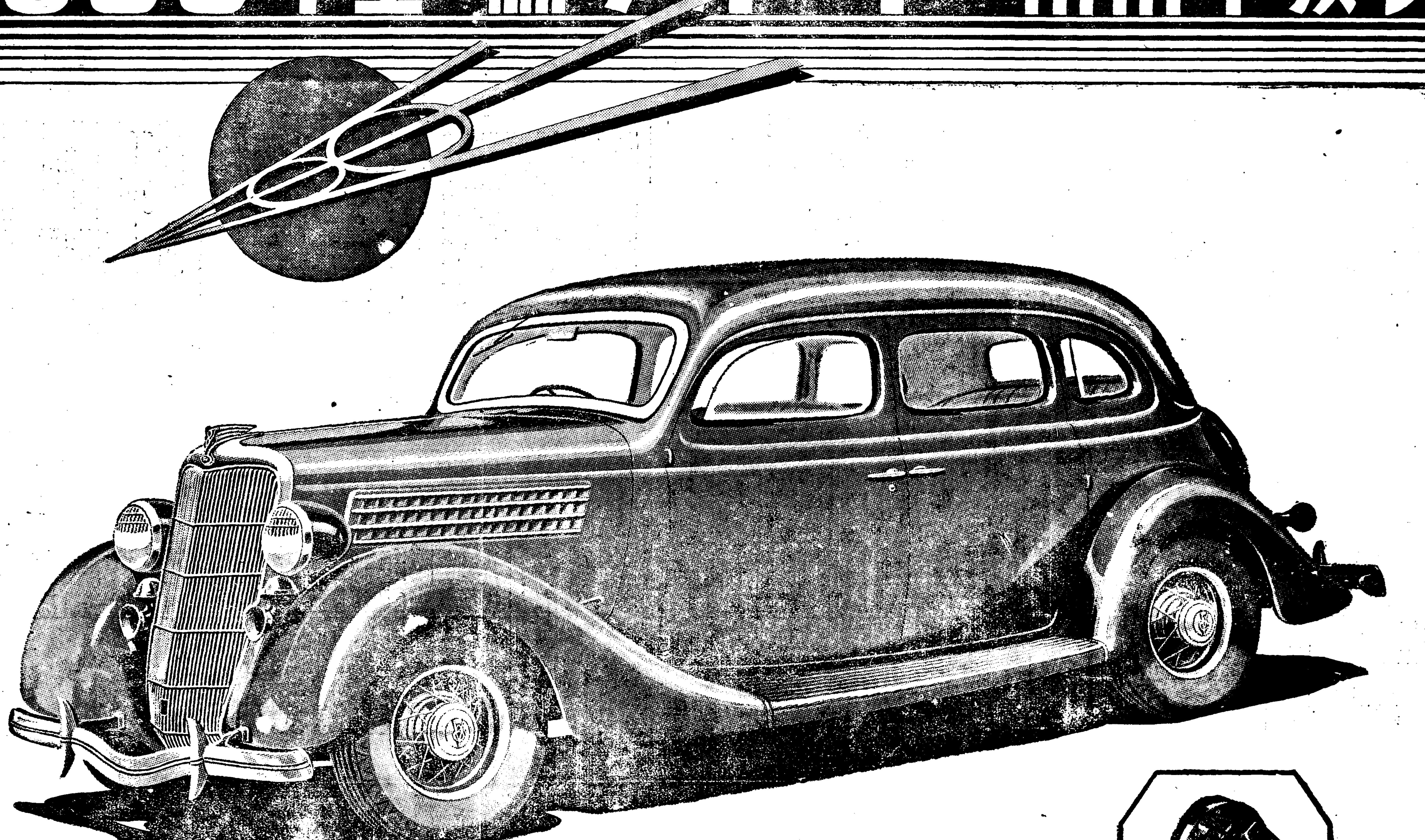
內勤女事務員採用
中等卒業程度又는以上
右志願者는自筆履歷書携帶來訪
面會時間午後二時부터六時까지
京城長谷川町 朝鮮公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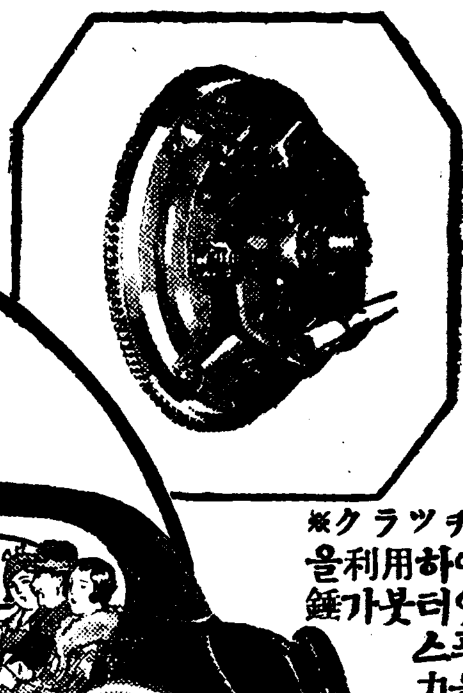
三月三十一日낫부터特別大公開 料金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社特作映畫 人情悲劇 嫉妬 全六卷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奇怪劇 殺人魔의魂 全八卷
◇파라마운트社特作全發聲日本版 喜活劇 女子는눈이업다 全八卷
次週 四月三日낫부터 暗夜行路 나의全部를
麻浦桃花洞 電話龍山 三三 桃花劇場

當る二十八日特別大公開 突如第一映畫社第三回作品の名篇『折鶴お千』待望裡に堂堂特別封切
日本映畫配給社提供 第一映畫社第三回作品 オール・サウンド版 折鶴お千 原作 泉鏡花 監督 溝口健二 撮影 三木稔
山田五十鈴 夏川大二郎 主演 中野英治特別出演
これを見て泣かざるものは人に非ず鏡花小史描く女人哀史を問ふ大躍進篇!!
新興キネマ本年度新春提供 寬壽郎プロ本年度超級作
寬プロ第一回オール・サウンド版 鞍馬天狗 原作 大佛次郎 監督 曾根千晴
―前・中・後篇同時上映―
嵐寬壽郎大熱演 鈴木勝彥、嵐德三郎、松本田三郎 荒木忍、川島千惠子、月澄江、特別出演
御用捕鎖り組の暗躍をバックに御待ち兼ね!!御傑鞍馬天狗の活躍!! 丁字屋敷の怪異に端を發し悲壯彰義隊の力鬪!!なつかしや少年杉作新公の久し振りの活躍等江戶を舞臺に興味深深たる絕對豪華篇!!
永樂町 電本 中央館

三月三十日より短期特別公開 大衆本位特別サービス階下十錢均一
コロムビア超特作發聲日本版 アールロゲル監督作品 エバリンナップ・ヂエームス ムーレー主演 狂戀のつばさ アーサーベアーソン チーンドラウエル セルマドッド 共演
驀進する急行列車の前方に危險なる陸橋の破壞冒險飛行家デットの決死的救援
大都映畫社本年度最高特作映畫 東京每夕新聞連載漫畫より 串差おでん 原作 松下井知夫 監督 吉村操 主演 佐久間妙子、伴淳三郎 島田文郎、藤間林太郎、大岡怪童、琴路美津子 共演 桂章太郎、三城輝子特別出演
大都映畫特作連續時代映畫 創立一週年記念製作品 原作 御巴 島影美郎 監督 益田晴夫 躍る鬼神 (前篇) 阿部九州男、東龍子、木下雙葉 主演 澤田敬之介、大岡怪童 松村光夫、樋爪久子 久松玉城、佐田豊彥 共演
櫻井町 本局 八三 大正館

1935年型 新フオード乘用車發表





※クラッチ는遠心力을利用하야 設計上錘가붓터잇슴으 精스푸링의壓力을 低下하고베달의 足壓을 非常히輕快케한다

センターポイズ ライヂング

※ 搭乘者는다車軸과 軸의中間에타게됨으로後耳軸과모─든衝擊을避하게된다。前後의耳軸부터後部스푸링은特히柔軟하야탈맛이조트륵設計하엿다。

※ **センターポイズ**式은、더길어지고、더부드러워진스푸링과、提供한增大된스푸링베─스와를綜合하야서、只今까지맛보지못하던快適한맛을가장近代的인流線型의容姿……豪華한車窓內의調度

※ 구란케─스의直流式換氣裝置────오일의催滑狀態는늘良好하고

一層輕快하여진부레─키 폐다루의操作…………푸레─키의効率은一層良好하다

※ 一層輕快하게된구랏지 페다루와容易하게된기─야의入換。

一層더넓어진座席…………一層쑥들어가고柔軟한座席의궁둥幅의

一層廣濶한後部의出入門──車窓內에의出入은一層容易하게된다

더大型으로된타이야──에야궁둥은一層良好、또制動할時

路面에一層더接觸이잘된다──타이야의壽命이增加하야經濟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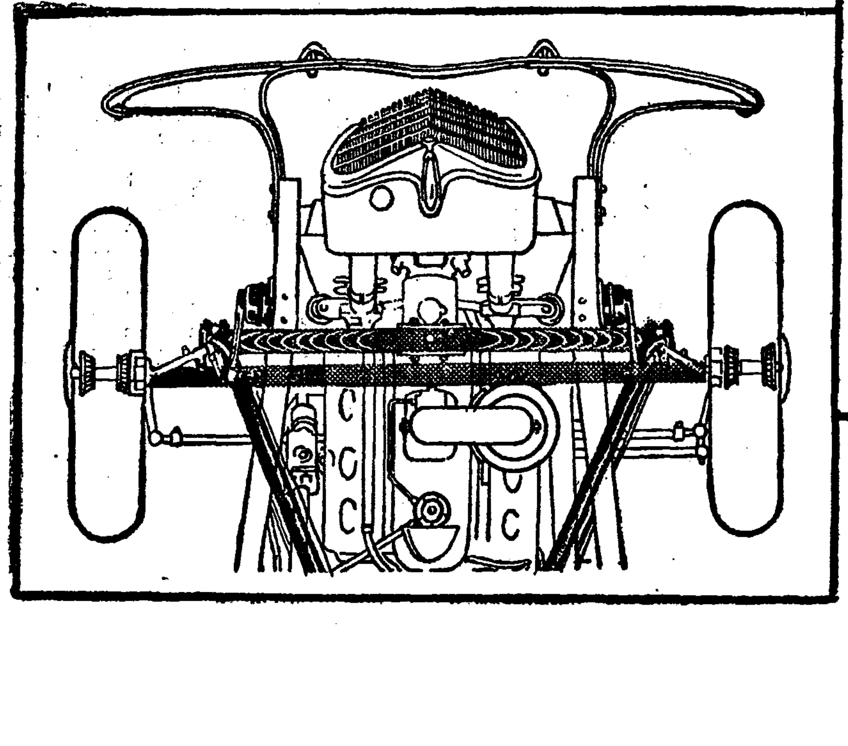
換向操作은一層容易………前部의出入門은어느型이나다前方에蝶番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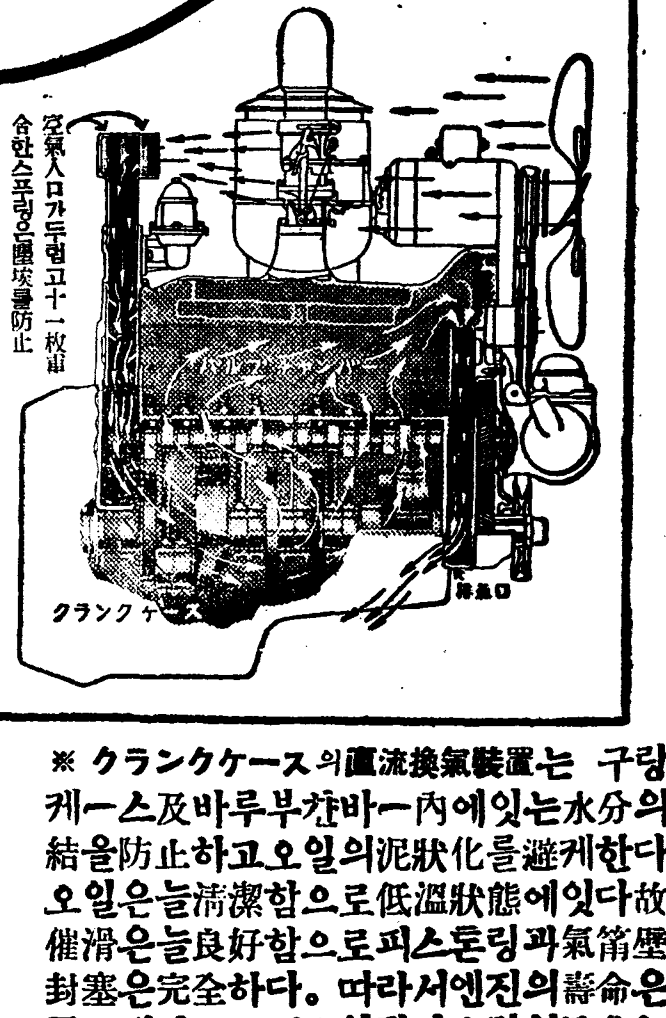
安全硝子는 標準裝置로써全部使用────포─드獨特한

裝置………一層頑强히된푸렘……低緩速의 臨時氣

化作用은 改善되야서一層良好하게됨……銅鉛코넥명롯도 베아링을使用……後車軸은 더大型으로더堅牢하게더靜肅하게하엿다………改善된 室內換氣裝置……改善되야서一層良好하게된 操從者의視野………其他多大한改良이施設되엿다

※ 더길어지고더堅牢하고더부드럽게된前部스푸링 車體가橫으로傾斜된것이輕快하여진다。





※ クランクケース의直流換氣裝置는 구랑구케─스及바루부찬바─內에잇는水分의凝結을防止하고오일의泥狀化를避케한다。오일은늘淸潔함으로低溫狀態에잇다故로催滑은늘良好함으로피스톤링과氣筩壁의封塞은完全하다。따라서엔진의壽命은一層오래가고・또오일과가소링의消費는一層減少된다。

只今까지製作된포─드中에서가장크고、廣濶하고、優美하며、快適하야、操縱이便하고더구나가장經濟的인車다。탈맛이爽快함과操縱의容易함과는 全혀劃時代的인것이다。또外觀美는特히傑出하야잇다

아무조록갓차운포─드特約販賣店에서精覽하신후試乘하심을願함

橫濱 日本フオード自動車株式會社 子安

地方論壇

生途차저온다는 移民團을보고

鎭南浦支局 一記者

【鎭南浦】 처량한 정든 고향 떠나 먼길 그도 한평생 처음보는 곳으로 살길을 차저오는 일백칠십호의 이재민 구백팔십삼명을 실은 림시 특별렬차가 지난 이십칠일 오전 열시 이십분 아직이 처연긔가 사라지기도 전에 진남포역에 도착하엿다 긔자는 이 소식을 듯고 아침일즉이 차로 다시 평역 (大邱府)까지 가서 삼십분 동안 기다려서 장의 당해를 어더 아홉시 이십분에 대평역에서 이민단을 실은 제일렬차에 동승하게 되어 오후 세시 다그랫다는 이상 오후세시 에미구(大邱)역에서 출발하여 김천(金泉)역까지 와서

達城郡	八戶	三十八名
高靈郡	二十七戶	百四十六名
善山郡	十八戶	九十一名
尙州郡	十七戶	九十三名
聞慶郡	三十八戶	二百十八名
醴泉郡	十五戶	七十四名
安東郡	五十五戶	三百二十二名

이상과 가튼 일백칠십호의 가족 구백팔십삼명이 가려 모히어 가튼 곳으로 오는 것인데 그중에는 어린애가 이백오십오명이나 되고 젊은 부녀들과 늙은 사람들이 백여명이 되어 허약한 몸들이 천여리 길 방향도 아지 못하는 곳에 끌리어 왓기 때문에 긔차안을 석 드러서니 도리고나 다 틀업는 긔차안에는 뷔인 틈이 시 쓰러저 누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음하고 잇다 긔자는 비분감격의 정을 억제하지 못한채 열세간이나 되는 긔차를 일일이 둘러 파하면서 인사를 마친 후 한 노인을 붓들고 수해 이후 오늘까지 어떠케 지내왓스며 가능농장으로 가면 잘 살어나갈 도리가 잇느냐고 무른즉 그는 경상도 사투리로 우리 사람들의 살길이 엽어러케 어려웟니까(中略)

하며 눈물을 머금고 말 못하마지 못하니 눈물 어시는 보지 못할 정경이엿다 여러 이야기를 주고밧고 하는 동안 렬차는 어느듯 진남포역에 가까와습매 인솔의 책임이 잇다는 가능농장 사무원 오륙여이 총동원하여 정신엽시 쓰러저 신음하는 그들을 부축하여 일으키다 그들은 어느 지방에서 오는 것을 표하나 식을 부처고 안에서 인도하는 긔를 따라 진남포역에 하차하엿다 긔차에서만 내리면 무슨 세계가 잇슬 것 가티 생각하엿지만 긔차에서 내리고 보니 압흐로 갈 길에 준비가 잘 되어 잇지 못하여 역전 마당에서 약 세시간 동안이나 지체되엿다 의지할 곳도 자리도 업시 흙자리 우에 일백칠십호의 살림사리가 장시 버려젓다 뇌빈할 등을 일으키는 이 긔차에 엄미로 정신엽시 누어잇는 부녀들의 머니를 찾는 어린애들 서로 부서를 찾지 못하고 한참 동안이나 실룽국저 장면을 일우웟다 열두시가 되어 가능농장에서 준비하엿다는 변도를 한개식 늘나주고 먹을 물조차 준비가 엄시 대소동을 일으키엿다 오후 두시경에야 모든 행리를 각각 차지하여 가지고 목적지인 장해도 가능농장을 향하여 출발하엿는데 과연 그네들이 압날에서 살길을 주고저하는 이만난이 아니고 가능농장에서 고용사리 부에 보조를 바라가며 고용사리 옵다려 오는 것 가티 보이엿다 그네들을 위한 주택이나 그타 여러가지 설비가 어떠케나 되어 잇는지는 추후 한번 가서 보후 발표하기로 하고 위선 그네들의 건강을 빌면서 눈물로 노마저 눈물로 보내노라

異域에서居住일코 七百家族路頭彷徨

進退維谷인그들의前途 今後救濟策果然何如

【神戶】 신호시 습합구 향가통 삼정목(葺合區向家通三丁目)으로 약채 충목정목 약채통 륙정목(若菜通六丁目)에 이르기까지 철도 성선 고가선(高架線) 미테 거주하는 조선인 『빠락크』 일백오십여호에 대하야 소할 습합경찰서(葺合警察署)에서 전부 철거 명령을 하엿다 함은 긔보한 바와 갓거니와 갈곳업는 주민들은 청천벽력가튼 명령을 접하고 한가지 황황할 뿐이더니 지난 이십칠일은 돌연 주안경찰서에 총동원하다시피 출동하야 전부 가옥을 도괴시키는 일방 부양자(扶養者)가 업는 자는 본적지로 송환시키고저 활동하고 잇는 중인데 일조에 집을 일흔 칠백여 주민은 나 만흔 부모와 어린 처자를 다리고 갈곳을 몰나 서로 붓들고 울고 잇슬 뿐이라 한다

별항과 가튼 소식을 접한 긔자가 그곳을 갓슬때는 오전 일시경이엇는데 여기저기 흐터저 잇는 살림사리를 주서모으고 잇는 눈물겨운 현상은 참아 볼수 업섯는데 변을 당한 주민의 애호를 들으면 다음과 갓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고향에서 살수 업서서 이곳까지 온 우리는 또다시 이런 꼴을 당하고 보니 어데가 우리 살곳인지 모르겟서요 집세(家賃)를 잘 못주어도 조선인이라고 가주는 절대 빌려 주지 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가티 우리가 이곳을 오고 싶허 온 것은 우니겟지요 말할수 업는 사정을 엇지 다 말할잇가 갈데 업다고 하니 경찰서에서는 고향으로 가라고 하겟지요 고향에 간들 무엇을 하고 살닛가 그럼으로 갈데 업다고도 못합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운운

초순에 상우회(商友會)를 조직하고 모든 안을 실행하기로 되엇다 한다

鎭興電氣架設 四月頃着工豫定

【鎭興】 함남 진흥은 아직까지 전등 가설이 되지 못하얏든바 작년부터 일본 도례지회사가 인흥면 성현리(仁興面聖峴里)에다 광업(鑛業)을 시작하며 동시에 마장(馬場) 범포(梵浦)간에 전긔 가설공사를 착수하엿든바 우선 그곳을 필한 후에는 오는 사월 중순경에는 진흥 방면으로 해공사를 시작하리라는데 시민 일반은 하로밧비 가설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饑饉의火田民에 救濟金遝至

【江界】 평북 오지의 화전민의 참상은 누보한 바와 가티 대부분이 절망상태에 빠저 굶머죽는 자가 속출하는 현상에 일반사회는 물론 당국자들 비롯하야 그 구제책에 부심하든바 최근 강계읍(江界邑) 발긔로 구제금 모집에 착수하야 지난 이십오일부터 이십칠일 당일간 모집된 금액은 아래와 갓다고 하며 일반사회 유지의 힘잇는 동정이 잇기를 바란다고 한다

百圓 金鹽宗 百圓 金鍾錄 五十圓 江界精米所 五十圓 韓泰琅 三十圓 沈洪碩 二十圓 劉基貞 十圓 大同고무支店 十圓 江口支店 十圓 李瑞錫 十圓 金福洙 十圓 崔德風 十圓 安泰弘 十圓 李飫亨 五圓 金泰勇 五圓 劉相寓 五圓 金泰鉉 五圓 金成吉 五圓 尹昌洙 五圓 桂淳 五圓 金榮福 五圓 榮興商店 五圓 三和商店 三圓 朴相秀 二圓 金宗元 二圓 金元模

培英幼稚園再生 悲運에서歡喜로 든든한維持會까지

【平康】 평강읍내 배영유치원이 예소교의 보조폐지문제로 폐쇄운명에 이르럿다 함은 무보한 바이니와 평강사회 유지간에는 이문제로 여론이 비등하야 저간 동유치원 유지회를 창립키로 준비중이든바 문제는 구체화하야 지난 이십일일 동유치원에 평강시민 다수가 모혀 창립총회를 열고 회측제정 임원선거까지 하엿는데 신임간부는 정부회장을 비롯하야 전체가 평강에 충실한 모화 다합하얏슴으로 유덕자를 망라한 것으로 동유치원에는 실로 일대서광이 비치게 되엿다는데 동회의 금후활동을 평강 전시민은 비상한 긔대를 가지고 주목중이라 한다 그리고 선임된 임원씨명을 보면

會長 全鋼秀 副會長 李會明 顧問 桂珖淳 富田 金萬瑞 幹事 全永圭 李泰潤 金鶴植 朴河龍 白炳疇 宋德燮 趙鐵齊 吳益善 李英和 朴勝萬 金智德 金用淳 全碩國 常任幹事 財務 蔡允洙 吳相勳 全鎭國 財務 朴晶植 白炳疇

不良青少年을 警察이團束

【泗川】 경남 사천시내(泗川市內)에는 최근 불량청소년들이 대발호하여 통식에 식괴물시여 거리를 횡행하면서 로상에 통행하는 가정부녀들에게 조롱을 할 뿐 아니라 밤이 되면 각 요리점 음식점에 매일 지어 도라다니면서 일반풍긔를 흘리게 하므로 일반시민의 비난이 만흔바 사천경찰서(泗川警察署)에서는 전긔 불량소년들을 철저히 단속키 위하야 지난 이십구일에 리모(李某)등 오륙명을 경찰서로 잡어다가 엄중한 조사를 하는 동시에 장시간 한 후 석방하엿다고 한다

平南佛敎總本山 永明寺三巴醜戰

幹部와幹部、幹部와信徒間에 今番에는棍棒질까지

【平壤】 신성해야할 종교긔관에서 분쟁을 내여두르며 분쟁의 추태를 연출하여다면 일반은 어떠케 비판할 것인가? 명승 모란봉 아래에 자리를 정하고 잇는 평남불교총본산(平南佛敎總本山) 영명사(永明寺)에서는 이삼일 이래 신자들과 간부사이에서 충돌이 이러나 추태를 거듭하고 잇다

영명사에서는 소회상변경에 주지 고모(高某)의 맘사한 분규와 주혜문제 등으로 말버러진 가리 소란하게 되엿든 것을 도학무과에서 주지를 출동하고 김보현(金寶鉉)씨를 주지로 마저 일시 평온해엇스나 김씨가 사임후에는 또다시 분규가 계속햇고 주지 리운호(李雲湖)와 거러간부들의 불미한 행동은 물론 인륜에 버서나는 행동이 잇서서 분규는 또다시 결점에 달햇든바 리주지가 사직한 이래 지금은 사유재산과 주지의 의자를 중심으로 간부와 간부사이에서 간부와 신도사이에서 삼파전(三巴戰)을 게속하고 잇는 상태이어서 갈수록 형세는 험악화하는 중이 삼일 밤에는 신자 류제구(劉濟奎)외 삼,사명이 간부의 불미한 행동을 공격한 것이 원인이 되여 급기야 간부들은 곤봉을 휘둘러 신자들을 란타하게 되자 그들은 목(合)을 앗가워하여 다라낫다 이 소식을 드른 신도들은 선암리(船岩里) 포교소(布敎所)에서 신도대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강구코저 목하 준비중이어서 압흐로의 형태가 주목을 끄을게 되엿고 학무과에서도 간섭을 개시하여 대소제출할 셈이라 한다

十年度土木工費 一百九十餘萬圓

【平壤】 평양토목출장소 국지(菊池)긔사는 십년도사업비 협의코저 상경중이든바 이십칠일 귀임하엿는데 평양출장소의 십년도예산은

▲大同江改修費	四五、〇〇〇圓
▲載寧江改修費	一〇〇、〇〇〇
▲國境道路費	五三、〇〇〇
▲普通江改修費	四〇〇、〇〇〇
▲大寧江改修費	三一〇、〇〇〇
計	一、六三八、〇〇〇

으로 이외에 전년도 지월(持越)은 대동강개수사 만원 재녕강 사만원 보통강 이십만원 대녕강 오만원 그리고 압록강과 청천강의 수선공사 일만이천원도 잇서서 총정비는 백구십일만 팔천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竊盜行脚男被逮

지난 십삼일 오후 세시 삼십분경 북행렬차로부터 나린 거동이 수상한 사나히가 큰 상자를 들고 역두를 배회하는 것을 원산서원이 심문하엿더바 그의 대답이 모호한 점이 만흠으로 본서에 대동하여 취조하여본 결과 그 사나히는 절도행각중인 것이 판명되엿다는데 ……경성부 고시정 일백오십번지(京城府古市町一五〇)에 둔리재근(李在根)(三)으로써 작년 구월 이래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도라다니면서 사십여차에 걸처 절도행각을 하여 오든 자로 일경원선 철원(鐵原)역에 나려 종방철원제사소(鐘紡鐵原製絲所)에 들어가 견사(絹絲) 십오관에 그가격 일천사백오십원을 절취하여 이것을 원산방면에 팔고저 가지고 오다가 그만 체포되엿다는데 원산서에서는 계속하야 엄중취조중이라고 한다

學級延長問題로 面民大會開催

【信川】 황해도 신천군 가련공립보통학교(加蓮公立普通學校) 학급연장(學級延長)문제로 지난 십삼일 오후한시에 당지 면사무소에서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림시회장 윤교신(尹敎信)씨 사회로 긴급협의 연장긔성회(學級延長期成會)를 조직하는 동시에 교사(校舍)증축과 기타사항을 토의하엿다는데 임원은 다음과 갓다고 한다

會長 尹敎信 執行委員 李周模外十二人

◇……(上) 安岳蹴球大會優勝팀(鷹月三成團選手) (下) 咸南五郡聯合蹴球大會試合光景

農地令吾不關焉 爭議는依然繼續

四十餘作人에게 一時移作通牒

新任農監의私的行爲

【鎭南浦】 평남 룡강군 대대면 어호리(大代面漁湖里)에는 경성 민병도(閔丙燾)씨의 소유토지 륙만팔천여평이 잇서서 소작인 륙십여명이 대대손손이 안접하고 자긔 소유와 가티 이래 소작하여오든바 지난 이월에 그토지를 진남포 재등농장(齊藤農場)에서 매수한 후 동리 강태희(姜泰熙)란 사람이 농감이 됨을 긔회로 춘경긔가 림박한 지난 이십구일를 연 사십여명 소작인에게 아모 리유도 업시 소작권을 이동한다는 최후통첩을 발하얏다 청천벽력의 최후통첩을 받은 사십여명 소작인들은 망지소조하여 엇지할 줄을 모르고 극도로 흥분되여 사태가 매우 험악하게 되엿다는데 소작인 리달풍(李達豊) 리영칠(李永七)외 사십여명이 서명날인하여 룡강소작위원회(龍岡小作委員會)에 조정신청을 제출하는 일방 지주 재등씨와 그외 요로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리라는바 시긔가 방금 춘경긔이요 농지령(農地令)이 발표되는 이때이니 만치 어떠케나 귀결이 될는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小作人某氏談

그 토지는 수십년간 대대손손이 우리땅과 가티 안심하고 소작하여 오든 것인데 상금 춘경긔가 림박한 오늘 소작권을 내여 노라고 하니 실로 앞이 캄캄하여 집니다 그리는 장차 살슴하야질 것이라 한거 토지를 금번에 매수한 동씨로 말해도 대사업가이요 그 부근에도 수십만평의 토지가 잇스나 그러케 우리한 소작권이 동요된 일이 업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가튼 일은 전연 새로 농감이 되엿다는 강씨의 해서가 아닌가 한다고 배화는 약하나마 아미 농지령이 발표되어면서 소작위원회가 되엿스니 공정한 조정이 잇기를 바라며 지주 재동씨가 압게도 면민한 안을 할리가 업다고 밋습니다 라고

再認可遲延으로 商講授業中止

當局의無誠意非難

【淸州】 충북 청주에는 상업제의 사립상업강습소(私立商業講習所)가 작년에 모모유지의 열성으로 창립되여 교사까지 건축하고 우선 일년생을 오륙십명 수업식키와 고 신학긔에 또 생도모집을 하려하는 차에 인가긔한이 경과하엿다는 구실로 당국으로부터 수업중지 명령을 당하얏스므로 강습소 당국자들은 계속인가를 출원하엿스나 인가가 지연되야 아직 하등의 통지가 업다는바 신학긔를 당하야 초려중이라 하며 학교당국과 일반식자간에는 당국의 무성의를 비난한다고 한다

酒興街에鐵槌

【宣川】 평북 선천은 교육과 종교가 정왕하는 지방인 반면에 괴상하게도 술의 경긔는 날로 흥하가서 거의 긔혁에 달할 마큼 되여 이에 따르는 풍긔상 또는 음식상 자미업는 악영향도 점점 늘어가게 되여 교육적 또는 사회적 문제거리이든바 선천경찰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류의하야 얼마전에 읍내 음식점 영업자들을 불러다가 영업취체에 대한 지시를 하엿다는데 그 내용은 『오는 륙월 일일부터는 종래로 음식점에서 고용하야 오든 청년부녀 즉 『나까이』를 전부 업새이는 동시 『카페ー』에서 고용하는 녀급의 단속도 엄중히 하게 되야 녀급증명서를 교부하며 녀급으로서는 재석에서 가무(歌舞)음곡을 할수 업고 또 외박(外泊)을 자유로 할수 업게 되엿다 하며 학생으로서는 음식점과 카페ー에 출입을 절대로 못하게 하얏다는바 이로써 청정부지의 경긔를 일우엇든 유흥의 다

大同橋下紳士屍

現金과通帳도所持 死後二週間經過?

【平壤】 삼십일 오전 열한시경 대동교(大同橋) 서편언덕 아래 강안에서 청년의 시체 한아가 발견되엿다 검시한 결과 주소가 일정치 안흔 복문현(卜文賢)(三○)으로 회중에는 현금 칠십이원 이십전과 저축은행 예금통장(府畜銀行預金通帳)이 드러잇섯는데 통장에는 천원을 예금햇다가 전부 차저 내인 것을 보아 사업에 실패하고 비관자살한 것 갓다 한다 시체는 사후 이주간 이상을 경과한 모양인데 의복과 기타로 보아 중류 이상의 인물 갓다고 한다

全南에調停申請 勿驚! 六倍激增

微溫的農地令의反響

【光州】 농지령(農地令) 실시를 물구하고 소작권 이동긔인 춘절을 당하자 전라남도 각지에는 악덕지주와 사음이 일층 발호하야 소작권 이동과 소작료 인상 등이 일층 성행하고 잇다는데 일월 이래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 신립된 소작조정건수는 일백십륙건으로 전년동긔 십구건에 비하야 륙배가 격증되엿다고 한다 그 원인이 농지령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소작권 이동문제에 대하야 호소할 곳이 업섯슴에도 긔인한 바도 잇겟지만 농지령 실시 벽두에 쟁의건수가 이러케 격증한다는 것은 지주들의 무반성과 당국자의 신법률 운용이 부족함에서 긔인함이라고 한다

人事消息

▲宋孝淳氏(鎭南浦府學務係主任) 今般平原郡庶務主任傳任人事次 去二十九日本報鎭南浦支局來訪
▲金滄振氏 (前元山光明學校敎員) 今般敎員辭職人事次 本報元山支局來訪
▲金文植氏(稅務署屬) 金海稅務署勤務中 鎭南浦로 轉任人事次 本社金海支局來訪
▲金濟浩氏 (楚山郡新蔚公普校長) 事務取扱 新任人事次 本報楚山支局來訪
▲張翰三氏(本報楚山支局長) 視察次 二十九日 滿洲方面出張

地主의大讓步로 垈地料問題解決

【平壤】 평양부 창전리(倉田里) 십일번지를 소유한 지주 리석희(李錫禧)씨와 경창차지인조합(慶昌借地人組合) 사이에서 지료문제로 반년간이나 분규를 계속중이든바 지주 리석희씨의 대양보로 원만한 해결을 짓게 되엿다는데 해결내용은 수일전 리지주와 조합대표 리정호(李廷浩)씨와 회견간담의 결과 지료는 일전으로 하고 리지주가 전긔토지를 소유하고 잇든 긔간까지는 륙개월간의 지료를 계속 체납하기 전에는 면도는 물론 지료를 인상치 안흘 것을 계약날인하는 동시에 원만한 해결을 짓기에 이르럿다 한다

馬山署檢擧事件 範圍去益擴大?

東京에서또一名被逮 連日取調進行

【馬山】 마산(馬山)과 함안(咸安) 등지에서는 『푸로』 문학사건이 탄로되여 관계자 오륙인을 검거하고 취조중이든바 얼마전에 함안서(咸安署) 고등계(高等係) 주임이 마산에 와서 마산서(馬山署) 고등계주임과 구수밀의를 한 결과 함안서에 검거된 리원수(李元壽) 제상목(諸相穆) 량명을 마산서로 압래 심리중이라 함은 긔보한 바와 갓거니와 지난 이십구일 동경(東京)에서 운전수로 잇는 황갑수(黃甲秀)(二?)란 청년을 검거하야 마산서로 압송하여 왓다는데 황청년은 마산이 고향으로 금번 검거된 전긔 청년들과는 동창생 관계도 잇섯다 하며 그동안 통신상으로 련락이 잇섯다 하야 련일 취조중이라는데 사건은 점점 확대될 것 갓다고 한다

四十餘商人代表 市場移轉反對

【扶安】 부안읍내 시장은 장소가 협착하고 설비가 불충분하므로 시장이전의 필요를 늣겨오든바 지난 이십오일 부령면 협의원회(扶寧面面協議員會)에서 그 이전 가부를 투표로 결정키로 되어 확대삼으로 이전이 가결되여 면예산에 시장이전비 적립금(市場移轉費積立金) 천원까지 계상키로 되얏다 이 말을 드른 시내 상인들은 사활문제라 하야 이십륙일에 사십여명이 삼천여관(森川旅館)에 회집하야 이전반대를 결의하고 군면당국에 진정을 하엿스나 요구를 거절하엿스므로 상인측에서는 도당국에까지 시장이전 반대진정을 하리라는데 그 구체적 방법은 사월

各幼稚園保育式 【上】鎭川幼稚園 【下】三成幼稚園

公普校基金으로 四千圓土地寄贈

芙江金、全兩氏美擧

【芙江】 청주군 부용면 부강리(淸州郡芙蓉面芙江里)에 거주하는 김학현 전서봉(金學賢, 全瑞鳳) 양씨는 항상 지방 모든 사업에 만흔 공로가 잇든바 금춘에도 당지 보교에 교원이 업슴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난 십구일에 전긔 량씨는 현시가 사천여원의 토지를 동교에 제공하얏스므로 이것을 재원을 삼어 지난 이십삼일에 교원채용을 허락당국에 진청하엿다는데 일반은 량씨에 대하야 칭송이 자자하다고 한다

今年度上半期 時邊利率協定

【開城】 개성특유인 민간금융 『시변』(時邊)의 리률(利率)은 변전부터 개성상공회의소에서 협정해 내려왓든데 금년부터는 재래구역이 칠월의 여수긔(與授期)를 상하반긔 각 륙개월간으로 개정하엿스며 금년 상반긔의 시변리률은 다음과 갓다

◇上半期時邊利率

三月	一分
四月	一分
五月	一分
六月	七厘五毛
七月	七厘五毛
八月	一分
計	五分五厘

救濟金橫領面長에 一年懲役을言渡 五年間執行猶豫

【尙州】 경북 상주군 공동면장 김시덕(金時德)은 수년래에 공금 삼천여원을 소비한 사실로 지난 삼십일 오전 열시에 상주지청(尙州支廳)에서 박종훈(朴鍾燻) 판사 담임 등천검사(藤川檢事) 립회하에 공판이 열니엿는데 사실심문을 마치자 등천검사로부터 준렬한 론고가 잇슨 후 징역 일개월을 구형하엿든바 판사로부터 일년징역에 오년 유예를 언도하엿다 한다

赤色農組事件 權宇燮等出獄

【奉化】 사년전 여름 경북 봉화、영주(奉化、榮州)에서 일어난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사건의 최고간부인 권우섭、권상창、김창희(權宇燮、權相昶、金昶熙) 삼씨는 이래 대구형무소에서 각각 징역 이년 륙개월의 형에 복역중이든바 지난 이십칠일 오전 여덜시에 만긔출옥되여 이십팔일 고향인 봉화(奉化)로 귀향하엿다고 한다

泰川郡下에强盜 老婆를刺殺逃走

【泰川】 북비을 저주하는 잔인한 참극 일막이 태천군하에 생겻다 지난 이십오일 오후 열두시경 태천군 원면 원동(泰川郡院面院洞) 백하회(白荷華)의 집에 어떤 괴한 한명이 침입하여 양자 리봉림(李鳳林)에게 돈이 만흘터이니 빨리 내지 안흐면 죽인다고 협박하므로 봉림은 긔민히 바깨 뛰여나와 린가의 응원을 구하여 가지고 돌아와 보니 늙은 모 백씨는 정부에 난자를 당하여 필경 절명되고 마릿스며 도적은 임이 종적을 감추엇는데 태천경찰은 목하 범인을 수사중이라 한다

火葬場基地問題 地元民이猛反對

住民의保健上重大問題라고 府當局에連署陳情

【仁川】 인천부의 신년도 이십이개 신긔사업은 상룡의 진정서를 바든채로 심의는 진행되는 중 또다시 지난 삼십일에는 화장장 긔지문제에 대하야 부천군 다주면 도화리(富川郡多朱面道禾里) 주민 일백사십여 호주민 련서로 진정서를 제출하야 지정서 흥수시대를 어루웟다 그 진정내용을 들으면 동긔지는 말십팔개소로 유명한 공원지일 뿐 아니라 일백오십호의 위생상 문제이요 또한 시내의 조선인 주택지가 점점 만연되여 금년으로만도 벌서 삼십여호의 증축을 보게 되는 현상이라 하야 지난 이십륙일 주민대회를 개최하고 대표의원 십오명을 선거하야 전긔와 가티 진정을 하엿다는데 이에 지주측에서도 주민의 위생을 존중하는 뜻으로 긔지매수에 불응하리라 하야 문제는 자못 중요화하리라는데 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갓다

委員某氏談

부에서 일마 부민을 위하야 신규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주민의 보건위생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 안입니까 생각하여 현재로 말하면 가옥이 계속 증축되는 중이므로 좀더 먼곳으로 정하야 달라는 것이나 만일 부에서 이것을 불응한다면 우리는 결속하야 어데까지든지 반대하겟슴니다 운운

地主某氏談

우리 긔지내에 화장장이 온다는 것은 조치 안흔 일이나 부를 위하야 묵인하라 하얏스나 아시는 바와 가티 주민 일백오십여호의 보건위생문제로 반대운동을 하고 잇는데 엇지 그 중의(衆議)를 무시할수 잇슴닛가 들으니 수용령(收容令)도 적용되지 안는다 하니 주민들이 승락치 안으면 절대로 팔지 안을까 함니다 운운

中等校合格者

▲麗水水產校

◇漁撈科十六名

金信歡 陳奉華 崔昊鎬 金宥岩 尹貴吉 沈賢球 朴京淳 林東演 李進永 郭四萬 金三用 明正烈 池良俊 玉明善 申庚孟 權澳植

◇製造科十五名

金在西 李滿壽 金丙洲 郭仔水 柳在雄 金洪坤 金吉文 吳成泰 黃世淵 朴鍾奎 姜斗萬 徐俊泰

▲全州新興校

崔璘浩 柳文煥 金永萬 尹修炳 宋鍾洙 林榮坤 崔成鶴 張永澤 張志歡 朴煥采 崔貝鎬 張玉信 朴鍾澤 權一寧 鄭玄錫 張東奎 金鍾成 尹順興 梁李獻 金大全 金東熙 朴鍾樹 鄭寶燮 柳賢準 金玉培 朴主哲 朴性喆 尹衡重 鄭仁善 劉五鏞 印杜英 金敬演 邊在雨 李元振 宋桂天 李在成 金四中 金晃元 李相文 金昌煥 金燦蓉 韓基還 姜熙天 金宗洙 文炳勳 金宗喆 金完先 盧木 李元雨 金貴蘭 趙獻斗 高炳斗 黃允奎 趙源國 金鍾洛 安賢玉 徐基煥

▲須彼亞女校

鄭海貞 金善愛 朴山海 金漢益 申點守 金蓮 全吉玉 朴閏貞 梁英淑 孫貞子 金貞任 盧順田 崔貞愛 許順振 金興模 金貞淳 崔小順 王貞順 宋斗慶 千三月 李慶連 梁仁庚 金福順 李英順 李明洙 高良喜 許聖日 趙貞嬉 申聖愛 郭順禮 韓貞南 洪恩淑 金順仕 金貞純 金恩鉉 吳順禮 金洪禮 成鍾任 金次禮 辛鳳順 林柄姬 鄭明順 金成喜 文納禮 鄭貴禮 申機生 高愛善 洪淳玉

▲高敞高普

吳敏鐸 金主泰 朴柱激 羅大均 文昌欽 文昶九 柳延植 文炳甲 申鉉一 曺承鎬 沈滄燮 林官圭 尹錫九 金炳文 全其學 金鎭爍 林基碩 李香換 邊鎭洑 洪尹杓 奇寬鎬 尹柱完 金鍾採 崔熙均 許琳 楊相甲 盧時憲 梁仁錫 金大運 徐東鎭 金川順 崔熙直 崔熙哲 鄭辛獻 鄭在哲 李東澤 趙在炯 鄭春澤 梁會璨 李永院 朴玟洙 辛瀉根 申錫滸 曺寬侑 韓炳洙 徐昇春 文宗烈 金昌建 李時炯 白洪基 趙英起 金炳燻 辛昊九 吳荒錫 奇世杓 金奉者 曺升鉉 命碩主 鞠承鉉 申卿燮 羅址鍵 柳寅烙 韓相元 趙國衡 趙衡 權寧達 奉萊碩 李丙均 柳雙童 姜肇熙

光州
玄濟明獨唱大會
△時日 四月十九日
△場所 帝國館
△主催 光州基督敎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光州支局

善山
金鳥山賞春會
△時日 四月七日午前十時出發
△場所 金鳥山圓城壕下
△主催 朝鮮滿蒙日報兩善山支局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翠野支局 位置 海州郡翠野市 右新任支局長 鄭日和
右依願解任 支局長 崔跂澤

謹告

淮陽支局 記者 金泰逢 顧問 李韓憲 右新任
安州支局 總務兼記者 金德鉉 右解任 總務兼記者 金在澄 右新任
扶安支局 記者 朴炳吉 右新任
咸安支局 記者 金振國 右任伽倻駐在記者
元山支局 文坪分局長 徐廷參 右新任 文坪分局長 朱相健 右解任
淸安支局 淸安駐在記者 李松得 右新任
延安支局 松台分局長 愼有成 同記者 朴昌濟 右新任
江西支局 白福分局長 趙炳魯 同總務兼記者 趙洪植 同記者 趙炳敎 同記者 金亨杜 同顧問 趙永周 右新任
郭山支局 總務兼記者 吳勳琛 右任觀舟面駐在記者
間島支局 記者 李載勳 右新任